

회보 발표 시창22~23년 (1937~1938)

佛^불
法^법
研^연
究^구
會^회
創^창
建^건
史^사

宋
奎

佛불法법研연究구會회創창建건史사

머 리 말

第壹編 壹回拾貳年

第壹章 大宗師의 誕生

第貳章 大宗師의 幼時와 發願動機

第三章 大宗師의 求道精誠과 苦行

第四章 入定狀況

第五章 出定과 大覺

第六章 大宗師佛法에 對한 內定

第七章 大宗師現社會를 보신 切感想

第八章 工夫人의 切集會

第九章 團員의 切組織

第十章 大宗師의 教化方法과 本會期成組合

第十一章 防堰役事와 會室建築

第十二章 團員의 祈禱

- 第十三章 大宗師佛法에 對한 宣言
- 第十四章 大宗師의 蓬萊山 修養과 本會의 準備 工作
- 第十五章 本會의 創立
- 第十六章 創立 當年의 會勢
- 第十七章 訓練 法의 實施
- 第十八章 學力 考試와 學位 等級 法의 制定
- 第十九章 事業 考試 法의 制定
- 第二十章 各 項 處 理
- 第二十一章 本會 儀禮의 發表
- 第二十二章 四 紀 念의 發 表
- 第二十三章 本 年 度 工 夫 及 事 業의 概 觀
- 第二十四章 有 功 人 待 遇 法의 發 表
- 第二十五章 身 分 檢 查 法의 發 表
- 第二十六章 本 年 度 工 夫 及 事 業 概 觀
- 第二十七章 第 一 回 紀 念 總 會

佛불法법研연究구會회創창建건史사

宋

奎

머 리 말

古語고어에 말삼하기를 歷史역사는世上세상의 거울이라고 하나니 이것은 어느時代시대를勿論물론하

고 佛은 일의興亡홍망성의盛衰가 다 歷史역사에 納아나는 까닭이다 그러나 歷史역사를 보는

者자가 文字문자에 依支의지하여 地名지명이나 人名인명이나 經歷경역의 年月日년월일만 覈핵보는 것으

로 能능히 歷史역사의 眞面진면을 다 알지는 못한다 反반다시 그때의 大勢대세와 그 主人주인공公들의

心境심경과 그 法度법도組織과 그 實行실행經路를 解得해득하여야만 能능히 歷史역사의 眞面진면을 볼 수

있고 內外내외를 다 비취는 事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한다면 孔子공자門庭의 歷史역사를 볼 때

에는 儒教유교의 眞面진면을 可가이 알 것이오 佛敎불교의 眞面진면을

可가이 알 것이며 我나의 大衆대중會회上의 歷史역사를 볼 때에는 佛불法법研연究구會회의 眞面진면을

도 할 알 것이니 古고 則칙 本會본회는 果과然연어떠한 使命사명을 가졌으며 時代시대는 果과然연어떠

한 時代시대이며 大衆대중師사는 果과然연어떠한 法법은 果과然연어떠한 法법이며 實行실행經

路노는 果과然연어떠케 되었으며 未미來래에는 果과然연어떠케 結實결실될 것인가를 究연구하여

야 할 것이다 원래 문화 나는 元來文學이 적고 세상 역사 따라서 世上歷史에 상식 부족 常識이 不足하니 물론 勿論 그

文法組織이 만족 滿足지 못 할 줄은 잘 안다 다행 그러나 多幸이 창립 초기 創立初期로 비롯하야 실지 實地

的 叅見한 바가 있음으로 견문 오즉 그 見聞된 바를 記述하야 감 敢히 대중 大衆에 보이는 바이니

讀者諸位는 차 此를 諒解하시고 매양 每樣 그 實境만 조감 照鑑한 다면 본회 本會의 創立趣旨에

만은 理解가 있을 줄로 리해 믿는 바이다

第壹編 壹回拾貳年

第壹章 大宗師의 誕生

本會 大宗師의 성 姓은 朴氏요 중년 일음은 重彬이시요 호 號는 少太山이시니 본회시창전 本會始創前

貳拾六年 (李朝 高宗 貳拾七年) 신묘 辛卯三月二十七日에 조선전라남도영광군백수면 朝鮮全羅南道靈光郡白岫面

吉龍里에서 탄생 誕生하시다

大宗師의 始祖는 신라시조왕 新羅始祖王 (名赫居世) 이요 중세 中世에 본 그 本을 얻기는 밀성대 密城大

君 (新羅 景明王) 심삼 十三世 祖 淸齋 公 朴審文 (諡 忠貞) 은 리조 李朝 世 祖 時에 육신 六臣과 더

부러 상왕 上王 (端宗大王) 을 모복 謀復 하다가 순절 殉節 되야 충사 忠祠 (寧越 東岳寺) 에 배향 配享 하였고

그 後에 후 京畿道 揚州 郡에 세거 世居 하다가 七世 祖 (名憶號) 지 至 하야 영광 比로 소靈光에 移

거주
居하였으며 부성삼모 父는成三 母는 유씨 劉氏(名正天)이니 처음에는 동군군서면마읍리 同郡郡西面馬邑里

거주
에居住하다가 대종사탄생전칠년 大宗師誕生前七年(甲申)에 백수면갈용리 白岫面吉龍里에 이거 移居하였다

대종사 부친성삼공 大宗師의 父親成三公은 소시가빈 少時에 家貧하여 학문 比魯學文은 없었으나 천성명민 天性이 明敏함으

평생 중인 로平生에 衆人의 경모 敬慕함이 있었고 모친유씨 母親劉氏는 천성인후 天性이 仁厚하여 린리 隣里에서

항상 덕인 恒常德人이라는 칭호 稱號를 받았으며 형제사인 兄弟는 四人이 있는 中 대종 大宗師께서 셋재아 셋재아

드님이 되시니라

第貳章 大宗師의 幼時와 發願動機

自始創前貳拾六年(辛卯)至始創前拾六年(辛丑)

대종사 유씨 大宗師幼時로 볼어 기상 氣像이 넘々하시고 도량 度量이 濶達하시고 사물 事物을 對합해 주의 注意

하는 천성 天性이 있으사 시청연동 視聽言動을 항상범연 恒常汎然이 안이 하시며 놀으실때에도 놀으실 때에도 매양 每樣長

者의 자석 席을 조차서 언행 그 몸은 言行에 문기를조와하시고 문기를 조와하시고 무식 無識한 普通兒孩와도 동류 同類

하기를 실어 하시며 여인상약 與人相約에 한번 한번하기로 말삼한 것은 아모리 아모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다시 실행 實行하야 허언 虛言을 짓지 안이 하시니 당시부형 이럼으로 當時 父兄과 장자 밋물은 長者의 만은

기대
期待를 받아들였다

(逸話)

열. 부친을 놀내게 하신 일

대종사 사세되시든해 어느날에 부친과같이 아참진지를 잡수시드니 대종사께서 당신의 밥이 적다 하야 부친의 상에잇는 밥을 취하야 오신대 부친께서 사랑한생각으로 말삼하기를 『네가 이른의 밥을 가져가니 죄가 맞당히 마저 야하리로다』 대종사가 라사대 『아버지가 만일 나를 때리기로하면 나는 먼저 아버지를 놀내게 하리라』 하시엿다 부친은 그 말삼을 들으시고 다 못우스시며 보 통아해의 작란에 소리로 인종하고 심상한생각으로 달은가사를 감찰하든중 멧시 후에 몸이 좀 피곤함을 인하야 사랑(舍廊)에서 잠간 낮잠을 자시드니 대종사 청상(廳上)에 놀으시다가 돌연이 큰소리를 질너 가로대 이압노루목(獐項) 길에 동학군(東學軍) 보라 하시니 때는 갑오년 춘간(甲午年春間)이라 사 방에 폭민(暴民)들이 동학(東學)을 리용하야 민간에 약탈(掠奪)이 심하고 또는가세가 과히 빈한치안이 함으로 그란당(亂黨)이 온다 온다 하는 예보(豫報)가 잇어서 항상 조심중에 잇든바 대종사께서 전일에 부모와 밋가 권이 동

학군으로써 거정하는말삼을들엇든판개로 이와같이 헛경보(警報)를하신것
이라 부친이잠결에 이급보(急報)를듯고 대경실색(大驚失色)하야 밋처정
신을차리지못하고 곳담을넘어 후원죽림(後園竹林)속에 은신하였드니 오
래후에도 아모헌화(喧嘩)의소리가 들너지안는지라 이때에모친이 그광경
을보시고 가만히동리에순회하야 그란당의 거취(去就)를찾엇으나 종시흔
적이없음으로 드디여이상히여기여 대종사의게 그사실여하를물은즉 대종
사서서히답하여가라사대 내가아참때에 아버지외약조하일을 행하였다하시
난지라 모친이그사유로써 곳부군(夫君)의게 고하였으나 부친은오허려
의심을풀지안이하고 부인(夫人)으로하야금 재차동리를살인후다시 대종사
에게 그진가를물으심애 대종사또한 전과같이말삼하신지라 부친이그제야
안심을얻으시고 내림에심히 경탄(驚嘆)한바가 있엇다한다

이 보는것마다의심을내신일

대종사칠세되시든해에 벌서큰의심이나시였다 어느날일기가심히화창하고
하날에는 한점의구름이없으며 사망산천에는 청명한괴운이충만하야 마치
새천지를 보는듯한때이다 대종사고요허안즈사 이대자연의 풍광을사랑하

시며 우으로 맑은 하늘을 이윽히 보시드니 문득 생각이 나서기를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앓지 하여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의 심이였고 그 뒤에는 또 생각나 시기를 저와 같이 깨끗한 천지에서 우연이
바람이 동하고 구름이 일어나니 그 바람과 구름은 또한 어떠한 것이 되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심이였다 그리하여 한번의 심머리가 시작됨을 따라 일백의
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나를 생각한즉 내가 스스로의 심이 되고 물건을 생각
한즉 물건이 또한 의심이 되고 주야나 사시를 생각한즉 주야사시가 모다의 심
되야 이의심 저의심이 한가지 대종사의 가삼을 긴장(緊張)케 하였다 그
러나 그의 심머리를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한즉 모도가 운무중(雲霧中)에 잇는
산을 바라보기와 같아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차즈면 차즐수록 더욱 묘연(渺然)
해지고 하나도 그 요령을 얻기가 어려운지라 대종사 스스로 생각하시되 이
물은 리치를 세상에 아는 자 그 누구인고? 만일 알기로 하면 물론 알게 할 방식
이 있겠지 만은 내가 그—방식을 물은 소치로 다 하시고 스스로 탄식함을 마지안
이 하셨다 일로 볼어 부모의 명예의 하야 외면은 비록 한문을 배우시나 글 배우는
대에는 사실 뜻이 적으시고 좋은 의복이나 음식이나 기타 유희(遊戲) 등사도

조금도 생각지 안이 하시고 오죽이 | 묻은 것을 일체로 알고 저하는 것이 중심에
철저한 원이 되시었다

어느 때는 하날을 연구하시다가 하날이 산에 대인듯한 것을 발견하시고 멧
번이나 산에 올라 그 실지(實地)를 탐사하셨다 하며 또 어느 때는 구름을 생
각하시다가 인간에 묻은 연화(烟火)가 위로 구름이 되므로 인정하시고 스
사로 상쾌한 마음을 내신 일도 있었었다 한다

삼. 사숙선생(私塾先生)을 놀내게 하신 일

또 십세 되시든 해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었다 대종사께서 한문사숙에 다니시드니
그사숙선생이 대종사의 정원에 과실(柿木)나무가 만이 있으면서 과실선물을
진즉 안이 한다는 리유로 대종사를 미워하는 기색을 보이였다 그러나 대종
사께서는 마음은 있었으나 아직 부모의 처리(處理)가 없으므로 미처 과실선
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때마침 동지(冬至)날을 당하였는지라 그선생이
조선재래습관에 의하여 동지팻죽을 준비하였는바 대종사와 같이 단이논한 학
동(童)의 개난 별로내실(內室)에 불너들이여 팻죽을 공궤(供饋)하되 오죽
대종사의 개는 공궤(供饋)치 안이 하며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냉반(冷飯)을

사랑(舍廊)에서 혼자 잡수시되 온수공급(溫水供給)까지도 하지 않는지라 대
종사내심에 좀볼쾌하여 기섯드니 후에 그 선생이 어떠한 친구(親舊)와 같이
이야기 하든중 말하기를 나는 원래 이성질이 겸강(堅剛)하야 평생에 누구의게
든지 놀내여 본적이 업고 또는 구타(歐打)나 위협(威脅)을 당하여 본바가 없
었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한일이 있엇다 그때에 대종사께서 그 말을 들으시
고 속으로 웃으시며 말삼하시기를 내가 선생님을 일모(日暮)전에 놀내게
하리다 하신대 그 선생이 분연(奮然)히 가로대 네가 엇지 감히 나를 놀내게
하리요 만일 놀내게 한다면 네의 집안에 큰파벽이 될것이다 하고 조소한기색
을 보인 후에 또 말하기를 네가 만일 일모전(日暮前)에 나를 놀내지 못하면
어른을 조롱(嘲弄)한죄로 네의 다리는 성하지 못하리라고 위협하엿다 대종사
가 라사대 내가 선생님을 놀내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죄를 당하련이와 만일 놀내
게 할 때에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선생 『하기는 어더 케해』 대종사가
라사대 내가 만일 선생님을 놀내게 하거든 후일에는 팻죽을 공궤(供饋)할 때에
차별을 내지 말으시라고 말삼하시엿다 그 때에 엽페서듯든 그 선생의 친구가
이상이어기여 말하기를 자네언제 저아해의게 팻죽안준일이 있엇든가? 만일

자네를 놀내게 하거든 팥죽을 차별없이 주게 하고 다시 대종사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번 약조한 일을 잘 들었으니 네가 만일 일모전(日暮前)에 저선생님을
을 못 놀내게 할서는 내가 증명하여서라도 너를 꼭 맞게 하리라 고 말하였다
그날 오후에 대종사가 선생의 아들 일곱살 되는 아해를 다리고 가만히 문전
(門前)에 나와서 그 선생의 소유인 나무벼늘에 불을 노으시니 일시에 화광(火
光)이 충천하여 형세가 심히 위급한지라 당시 그 선생의 형편을 약논하면 그 선
생은 여러 사람의 산장(山庄)을 만히 수호(守護)하여 매년 송신매입(松薪買入)
으로써 유일한 생계를 하여 오든터이며 멋질 전불어 동리노동자들이 가위
총출동하다 심피하여 수만바달 송신을 한곳에 산같이 쌓게 되었으며 송신을
쌀때에 떨어진 입사 죽술가루벼늘이 또한 집채와 같이 그엿게 되었는데 바
대종사의 불노으신 곳은 이 | 술가루벼늘이었다 그 선생이 자기의 생명선(生
命線)인 나무벼늘에 일어난 화광을 보고 참으로 대경하여 웃웃을 벗어 소변
통(小便桶)에 적세가지고 전지도지(顛之倒之)하여 그 현장에 가서 동리사람
들과 같이 간신히 그 불을 진정하게 되었다 불을 진정한 뒤에는 그 선생이 방화
의원인을 조사하여 무단히 그날 나무저드린 노동자들의 흡연중실화(吸煙

中失火)라고 질책하든중 그 선생의 아들이 대종사의 방화한사실을 고하니
 그 때에 대종사께서는 방화하신후 숨몰아래에 안즈시여 그 현장을 보시고 있는
 지라 그 선생이 대경대노(大驚大怒)하야 엇지할바를 알지 못하고 곳대종사
 를잡고자하니 대종사말삼하시되 이것이오전에 선생님과 약조한일을 실행
 할이여늘 선생님은 어찌그다지성을 내시나니 까하고 곳다라나서다시는 그
 선생의게한문을 배우지안이하시니 그 때에 참견한여러사람들은 혹은비방도하
 고 혹은장차비범(非凡)한인물이되리라고 말하였다 『계속』



夏節衛生에對하야

四時中 사시중 사람의게 가장 병을 많이주는 때는 여름철이다 웨그런가하면 日氣 일기

가 너머나더웁고 습기가 많을뿐만 아니라 파리 빈대 모기 미균(微菌)이

잘번식되야 사람의게 病을주는 까닭이다 그런고로 赤痢 腸窒扶斯 虎烈刺

와같은 무서운傳染病이 많이流行하고 其外에胃腸病 마라리아 皮膚病이

전염병

병

유행

기외

위장병

적리

장질부사

호열자

피부병

에 일킨바가 되리라 그리고 또 부동을 닦는 자는 물은 사람의 시비 선악과 일체 허
물을 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이 부동이니 미한 사람은
몸은 때 록 움직이지 안이 하나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시비 장단 좃코나 존것을 말
하나니 만약 마음에 집착하거나 청정에 집착하거나 타인 시비에 움직이게 되
면 문듯도에 큰 장애가 되리라 (또잇소)

佛法研究會創建史

第三章 大宗師의 求道精誠과 苦行

自始創前十五年(壬寅)至創始前四年(壬子)

대종사 大師께서 한번 원(원)을 발(發)하신 後(후)로 난 歲月(세월)이 지(지)낼(낼)사(사)록(록) 마음(마음)이 더욱(더욱) 간(간)절(절)하(하)사(사) 晝(주)
宵(소)一念(일)으로 오(오)즉(즉) 所(소)願(원)成(성)就(취)의(의) 길(길)을(을) 찾(찾)기(기)에 勞(노)心(심)하(하)시(시)더(더)니 十(십)一(일)歲(세)되(되)시(시)든(든)해(해) 十(십)月(월)
十五(십오)日(일)에 朝鮮(조)鮮(선)舊(구)禮(례)에(에) 依(의)하(하)야 宗(종)族(족)一(일)同(동)을(을) 따(따)라 同(동)郡(군)々(々) 西(서)面(면)馬(마)邑(읍)里(리)後(후)麓(록)
饗(향)祭(제)에 參(참)禮(례)하(하)섯(섯)더(더)니 祭(제)禮(례)에(에) 山(산)神(신)을(을) 먼(먼)저(저) 祭(제)祀(사)하(하)고 祖(조)先(선)을(을) 뒤(뒤)에(에) 祭(제)祀(사)함(함)을(을) 보(보)시(시)
고 族(족)親(친)中(중)有(유)識(식)한(한)者(자)를(를) 차(차)자(자) 물(물)어(어)갈(갈)아(아)사(사)대(대) 今(금)日(일)祭(제)祀(사)는(는) 그(그) 目(목)的(적)이(이) 先(선)祖(조)를(를) 祭(제)祀(사)

함에 잇거늘 산신 山神을 먼저 하고 조신 祖先을 뒤에 할은 연고 緣故 잇니까? 족인 族人이 답

曰 산신 山은 곳 묘소 墓所의 주권지 主權地라 고 故로 주권지 主權地의 주제자 主宰者인 산신 山神을 먼저 제사 祭祀하고 조 祖

선 先을 뒤에 제사 祭祀함이라고 말하였다

(問) 문 그러면 산신 山神은 어떠한 권능 權能이 조화능력 造化能力이 있습니까?

(答) 답 산신 山神은 참으로 신령 神靈하야 조화능력 造化能力이 말노다 형용 形容하지 못할 것이다

(問) 문 산신 山神을 사람이 혹 或 볼 수도 있겠읍니까?

(答) 답 정성 精誠이 지극 至極한 사람에게는 혹 或 보이기도 할 것이다

대종사 大宗師께서 문답 問答을 맞이시고 생각 生覺하시기를 산신 山神이 이와 같이 능력 應應할진대는

나의 평생원 平生願하는바 의심 疑心을 이 산신 山神의 문의 問議하면 능력 能力이 있

으리라 하시고 내심 內心에 산신 山神맛나기를 작성 作定하시였다

그 후 後로난 매일 每日食後에 기어 期於히 산중 山中을 두류 逗留하사 산과 山果를 보난대로 혹 或은

가중 家中에서 정음 精한 飲食을 준비 準備하여가지고 현영 現靈光郡白岫面九岫山에 제 祭

物을 암상 巖上(俗稱 마당바위)에 진설 陳設하시고 전후 前後四方을 향 向하야 종일 終日도록 예배 禮拜하

시다가 일모후 日暮後에 귀가 歸家하시기를 매일 每日課程的으로 하시되 (或은 그곳에서 밤을 經過하섯

다할) 비가 오고 눈이 올지라도 하로도 빠짐이 없이 만사개년 즉십오세 滿四個年 卽十五歲되실때까지

하섯으니 그堅忍不拔한意志와 견인불발 의지 지극 至極하신精誠이야 정성 다이를수없었다

(註) 마당바우는 九岫山西北端 高峯頂上에있으니 大宗師의住宅인吉龍里 元永村

에서 畧一里나되며 當時山中形便은 森林이茂盛하고 猛獸가從橫하야 비

록壯丁이라도 單獨으로난 그山에올으기를 실어하는때이라 그러함으로

大宗師께서 父母님이萬一알으시면 반다시 危險을念慮하야 禁止하거나

또는峻責이있을줄을 推測하시고 처음에는 漢文私塾에 가신다핑게하시고

그時間을利用하야 감안이山頂에올으시였고 次々事實이 드러난後에는 母

親께서그精誠에感動하사 父親물으게祭物 (白餅類) 을周旋하야 大宗師의祈禱하

시는대에 후원 많은後援을하섯다한다

대종사십륙세 大宗師十六歲되시든해 정월 환세인사차 正月에換歲人事次로 처가 妻家에가섯더니 도사 맛참어떠한사람

이 고대소설 古代小說 (趙雄傳 또는 朴太簿傳云) 을보든中 중 (그小說主人公이 어떠한道士를맞나

공부 결과 工夫한結果에 탄월 정신 卓越한精神을얻어 소원 성취 그所願을成就하였다는 말삼을들으시고 심 心

중변동생 中에큰變動이 생기섯으니 지극 곳다름이안이라 산신 만사개년 至今까지 믿어오든 山神은 滿四個年

間 간 그와 같은精誠을 精誠은 들임에도不拘하고 불구 한番보이지도안는것은 반 可히 믿을수가

없을뿐안이라 산신 정체 山神의正體에 있어서도 유무 확실 그有無를確實이 판단 判斷할수 없는것인즉

이제부터는 소설 주인공 저小說의主人公과 같이 도사 道士맛나는대에 정성 精誠을드린다면 도사 道士는

有形한사람인同時에 동시 그交際가쉬울뿐안이라 수 이數만은人類中에 반다시 반다시없지

않이하리라고 생각 生覺하시고 전일 산신 前日에山神맛나고저하든 결심 決心을다시 도사 道士맛나기

로써 전향 轉向하시였다 후도사 그러하야 추소일렘 晝宵一念이 화상도사 恒常道士찾는대그치사 가로 街路에異

常한 결심 乞人이있을時는 후도사 이것이或道土가 않인가하고 半다시 청 請하야같이 귀 歸

宿하기도하시며 후도사 또는어떠한곳에 은사 隱士가 잇다는말을드르실때는 그것이或道 후도

士가 않인가하고 半다시 방문 訪問도하며 후청 或은請하야다가 같이지내시기도하니

十六歲로부터 이십이세 二十二歲에이르기까지 만오개년간 滿五個年間그러한무리의連絡이 실 實로頻繁

하였다

(註) 大宗師의妻家是同面張芝里에있었고十五歲時에父母의命에依하야夫人梁氏를

(逸 話)

一、乞人の게 돌니 신일

대종사 大宗師께서 근촌주점 近村酒店을 지나사더니 酒店壁上 高聲朗讀

에 쓰잇난 諸葛孔明의 詩 『大夢을 誰先覺 平生我自知』 라는 글句를

하는 지라 大宗師께서 크게 異常히 역이사 그 乞人の 容態를 살피보시니 衣

服이 百結되고 全身에 腫瘡이 濃滿하야 누구든지 서로 갖가이 안끼를 심어 할

만치 되얏난 지라 大宗師께서 內心에 生覺하시기를 古來에 道人이 或 險狀

한 形貌를 날우어가 지고 人間을 巡視한다는 말이 있으니 이 乞人의 詩를 有心

히 외운 것이 라든지 形容의 險狀한 것이 라든지 그 몬은 것이 凡常한 사람의 態度

는 안인 듯하다 하시고 나아가 人事를 한 후 곳술과 밥을 사먹이시고 因해 本宅

으로 다리고 오서서 數日間 食事を 供饋하고 待遇를 極盡히 하섯더니 後에 그 內

容을 알고 보니 아모료량 없는 바보인 것이 判明되얏다 한다

二、處士를 試驗하신 일

또 어느 때에는 어떠한 處士하나가 山中에 잇다는 말삼을 들으시고 곳사람을

보내여 招聘하였더니 그 處士가 먼저 大宗師의 父親을 뵈옵고 말하기를 나

산중 산중에서工夫 공부하야神通 신통을 얻은지가 이의오래이라 귀하 貴下의아드님이 만일 萬一

나를쫓아工夫 공부를배운다면 불가사의 不可思議의能力 능력을 얻게될지니 그工夫 공부

에着手 착수하기로하면 귀가 먼저貴家에飼育 사육하는 농우일두 農牛一頭를幣帛 폐백으로 주겠느냐고하

였다 부친 父親께서는 처사 그處士의말을信聽 신청하시고 장차농우 將次農牛를주려하시며 즉시 即時

大宗師 대종사를불너서 처사 그處士와相面 상면케하신대 대종사 大宗師께서接見 접견할際 제음에 예 禮 예하지아

니하시고 장유 말삼하시기를 구분 長幼의區分으로말하면 합 이제맛당이 영원 절하고되을지

나 보통회견 오늘날서로맛난것은 선생 普通會見과달나서 능력 마음이서로合할時는 영원 永遠히師弟

의誼 의를 맺기로한것인즉 포부 先生의가지신抱負와 능력 能力을이에다베풀나서 내의

信念 신념이生인後에 폐백 幣帛도드리고 사제 따라서 師弟의禮로써되오리다 강연 하시니 그

處士 처사처음相面 상면에 예 禮하지않이함을 불쾌 조금不快히生覺 생각하였으나 강연 強然히 참고 참고말

하기를나는 육정육갑 六丁六甲을通靈 통영하야 신장 神將을能히 부르고보내는 재조 才操가있으니

萬一願 만일원이있거든 시험 試驗해보라고하였다 대종사 大宗師말삼하사대 그러면나의보는앞

해서 신장 그神將을 실지 實地구경케하소서 처사 處士即時應諾 응낙하고 정 그날밤부터 精 精한房

을치우고 자기 自己의平素에일으든 주문 呪文을高聲讀唱 독창하야 종야 終夜를지냈으되 신장 神將

이 보이지 않는지라 그處士焦燥한生覺으로써 다시말하기를 이것이아마近

洞에 初喪난집이있거나 或은解産한집이있거나 萬一그러치아니하면 이房

에서 前者에 或初喪解産等을 지낸듯하니 오는저녁에는 다른재房하나를

定하여달라고 간청하였다 大宗師生覺하시되 이것이반다시 邪術이며 虛

無麥浪한말이로다 무슨工夫가 사람의生死잇는곳을 다避한다면 그어느

곳에 쓰게되리요하시고 內念에可謂 作罷하셨으나 外面으로 그處士의請

한바를 容認하야 다시다른재房하나를 定하여주셨더니 그處士또한 終夜

誦呪하되 神將이終是 보이지 않는지라 그處士대단惶恐慚愧하야 그날새벽

에 大宗師의 外出하신텐을타서 가만이 越牆逃走하였다고한다

(右에記錄한逸話二節은오죽한두가지의例만든것이니第一節은大宗師道士만나고저하신텐첫번經驗의일
이요第二節은또한그때의만흔經驗을지내신後일이다)

대종사 이십세 大宗師 二十歲되시든해 十月頃에 父親喪을맞아시니 當時家庭狀況을舉論하

면 大宗師께서 元來부터만 願을품었음으로 家庭産業에對한 注意가없으

셨고 母親劉氏와 夫人梁氏는 女子의몸인故로 또한家産의内外務를 統制하

기가어려운同時에 父親의遺債가 또한 整頓되지못한바있음으로 그遺産은

처사초조생각

후해산

후초상해산등

대종사생각

공부

내념가위

방

정

월장도주

처사

부친상

원

고

정돈

당시 가정상황 거론

주의

동제

유산

점점 소모 시작 漸々消耗하기始作하야 불과수년 不過數年에 탐패 거의蕩敗의至境을 지경 當하엿다

(伯兄과 아우는 出系하고 仲兄은 早死하엿음으로 當時家督責任이 大宗師의 게엿엇음)

대종사 당변 大宗師께서 후 當變하신後로난 생활 生活에對한 의뢰 依賴와 구도 求道에對한後援을 일조양실 一朝兩失

하게 되얏고 겸 兼하야 모친 늙으신 母親과 어린 처자 妻子의 生活責任도 대종사 또한 大宗師의 게

全担되엿으니 산림 뜻없는 産任과 경험 經驗없는 苦生에 고생 그 辛酸함이 접응 어떠하엿으리요

不啻라 오개년 五個年 동안이나 구 求하고 바래든 道士도 수 數만은 사람을 정당 接應하엿으니

모도가 凡常한 무리요 허위 虛僞와 사술 邪術에 지내지 못하며 정당 正當한 眞理를 찾을 곳이 없

게 되얏으니 대종사 이것이 大宗師의 生活困難과 고통 마음苦痛을 원인 아을나 받게된 原因이

다 이십이세 그리하야 심사미정 二十二歲 되시든 해에는 종래 從來에 道士맛나고저하는 생각 生覺도 차 次

次斷念하시고 한 心事未定으로 세월 恨만은 歲月을 보내 보내시엿다

(註) 大宗師 父親께서 大宗師의 行動에對하야 처음 처음에는 或反對하셧으나 終後 終後에

는 精誠에 感動한 바되야 조금 조금도 禁止하지 않하셧고 또는 또는 將來에 凡常한 人

物이 不인 줄을 豫測 豫測하시고 모든 모든 行事に 極力後援하셧으며 涅槃 涅槃前年에도

大宗師를 爲하야 前日 前日 祈禱場所인 마당 마당바우附近에 數間의 工夫室을 構築 構築하셧

고 열반입시 涅槃臨時에는 澈天의 遺恨이 오죽 大宗師의 前途發展을 보지 못한 것이 라고 累々히 말삼하셨다 한다

衛 生

태 모 위 생 대 胎母衛生에對하여

녀 처 입 태 女子가入胎되면 最終月經 計算하여 二百八十日만에 解産하는

것이 普通인대 그 동안에 注意할 點을 쓰고저한다

一、 妊娠嘔吐症은 子宮의 反射性으로 이어나는 것인데 胎母의 約半數나 된다

入胎된지 一朔이나 二朔불어始作하여 五六朔에 가면 自然히 治療되는

法이나 或은嘔吐가 넘우甚하여 危險하게 되기도하고 甚하면 死亡하

는 수도 있다

妊娠嘔吐症에 攝生法은 心神을 安靜케 하고 身體도 靜養하며 飲食物은

分量은 적고 養分은 많은 것을 먹고 或鎮吐시키는 藥도 使用해보나 效果가

잘나지 아니하며 極甚하여 生命이 危險할境遇이면 醫師의 診察後에

佛法研究會創建史

第四章 入定狀況

自始創前四年(壬子)至始創元年(丙辰)

대종사 大宗師께서 道士맛나고자하는생각이 한番斷念되신後로난 心中에漸々깊어진

것은 이 일(이일은의심을云함)을將次엇지할고? 하는한생각이였다 그리하여 처

음에는 生活에對한 計較心도或있엇고 苦生이라는뜻김도 或있엇지만은 歲

月이지낼사록 다른關念은 頓然히忘却하시고오즉 그한생각으로써 아참으로

부러져녀에일이고 저녀으로부러아참에일으시며 二十四五歲되시든때에는 이

일을어찌할고하는 그생각까지도 이저버리게되야 漸々昏睡狀態에들어가서

行하야도 行하는줄을몰으시며 안자도 안진줄을몰으시며 말하야도 말하는

줄을몰으시며 飲食을먹어도 먹는줄을모르시여 아모分別力이없는 偶像같이

寂然한至境에일으섯스니 當時의現況과 外人의評論은 그어떠하였는고?

대종사 거처 가옥 누년 수습 천정 참투 창벽 퇴락 太宗師의居處하신家屋은 累年을修葺치안이함으로 天井이滲漏하고窓壁이頽落

하야 風雨를 맞날時는 漏水물이 座席에 滂々하야 畢竟은 二次移舍에 가는 곧 마닥

그 家屋이 倒潰되얏고 朝夕之供은 羸飯惡食이라도 能히 繼續할수 없어서 食

時를 空渡할 때가 한두날이 안이었으며 그 中에 偶然한 病苦가 發生되야 腸中에는

巨大한 積이 들어있고 全身에는 瘴氣가 遍滿하였으며 兼하야 間斷없난 咳嗽症으

로 形容의 枯槁함이 可謂皮骨相連이 되신바 一般家族의 애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

거니와 隣近村人들도 或은 愛惜히 여이는 者도 있고 或은 前世의 罪業으로 그리 된 것

이라고 하는 것 같이 말하는 者도 있어서 參見한 衆人의 眼目에 舉皆精神 잃은 癡

(逸話)

一、入定當時의 實景

대종사 大宗師께서 그어느날에 夫人이 艱辛히 朝飯을 準備하야 床을 올리고 아직

進旨가 끝나기 前에 田作에 除草가 밥분것을 생각하야 急히 나아가 그 일을 맞이

고 正午가 거이지낸 後에 歸家한 즉 大宗師께서는 그때까지 進旨床을 앞에 두시

고 밥은 비빈채로 수저를 놓코 默然히 안드셨난대 寗房안에 파리떼가 모여들어

그 밥과飯饌을 반찬 빠라먹고있난지라 부인 夫人이 혼자嘆息하고 한식 각가이가서 큰소 큰소

리로 대종사 大宗師를 불러 연유 그緣由를 물은대 대종사 大宗師또한 놀내시며 식사 비로소食事하시든

중 中그와같이忘却된것을알으셨다하며 망각 또어느때는 법성포시장 法聖浦市場을가신다하고

집에서出發하사 출발 얼마되지안는 선진포 仙津浦(吉龍區內에在할) 附近에가시다가 부근 문뜻서

서終日을動치안이하시드니 종일 市場에단여오는사람들이보고와서 본택 그말삼을本宅

에傳하는지라 전 一般家族은 일반가족 모다驚惶하야 경황 곳가서되서와타하며 또어느때는

집이滲漏하야 침루 빗물이안즈신물음을적세되 감각 조곰도感覺을몰으셨다한다

二、가족 家族의苦悶狀態 고민상태

대종사 大宗師의精神이어느때에는 혹분별 或分別이있는듯하다가 혼돈 도로혀混沌해지시고 혹 或

기억 記憶이날아나는듯하다가 망각 도로혀忘却해지시니 가족중 家族中에서 혹과거수도인 或過去修道人의寂

연부동 然不動이라든지 입정삼매 入定三昧라든지 (三昧는印度말이니우리말로하면정에드렸다는말) 그러

한語句와 어구 傳說을듯고본바가 전설 있었다면 당시 當時에그어떠케 당 생각하였을난지

알수없지만은 평생 오즉平生에한番도 번 듯고보지못한 경험 처음經驗을當하였으니 당 어

지一時인들 일시 安心을하였으리요 안심 그리하야 혹 或어느때는 문부 問卜도하여보왔으며

또는夫人부인께서는 大宗師의 精神回復을爲하야 多年間後園別處에 壇을 모으고 每夜에至誠으로하날에 祈禱한일도있었다한다

第五章 出定과 大覺

始創元年 (丙辰)

삼월이십육일 三月二十六日 이른새벽에 大宗師默々히안즈섯드니 偶然히精神이灑落하야 前

에입든새로운氣分이있음으로하도 異常히역이사 窓을열고나와서 四面을살펴

보시니 때에天氣가甚히淸朗하고 별과별이皎々한지라 아예그|맑은空氣를呼

흡하며 場內를두루徘徊하시드니 문듯이生覺저生覺이 心頭에날아나서 年來

에지내온바가 모다苦生이안인가하는생각이며 苦生을免하기로하면 어더케하

겟다는생각이며 날이밝으면 于先머리도빛고 손톱도짧으고 洗水도하리라는

等 生覺이繼續되시였다 於焉間날이밝음에 먼저淸潔하는器具等を찾으시니

左右家族은 大宗師의意外行動에 一邊은놀내고一邊은김버하야 그|動作을注

視하였으니 여것이곳出定の初歩이시다 그날朝飯을잡수신後에 隣村居住하는

수삼자 촌인 數三者의 村人이 天道教東經大全을 가지고 와서 互相言論할 際에 其中特히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々』 이란 句節을 드르시고 頓然히 그 義

旨가 解釋되시나니라 大 宗 師 大 端 神 奇 이 여 기 서 트 드 니 열 마 後 에 또 여 떠 한 儒 學

두 사람이 지내다가 暫間들어서 休憇하든中 周易에 『大人與大地合其德 與日月

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이라는 句節을 가지고 서로 言論함을 들

으시고 그 義旨가 또한 恍然明析되시나니라 이에 더욱 異常이 역이사 이것이 아

마 마음 밝아지는 証據가 안인 가 하 시 고 前 月 에 願 하 시 든 문 은 疑 頭 를 次 第 로 研

磨해 보신 則 모다 한 생각에 넘지 안이 하야 드디여 大覺을 일우섯으니 이 날은 丙辰三月

道의 法影이 十方世界에 照耀하고 大 宗 師 의 宿 願 이 一 時 에 滌 雪 되 시 든 丙 辰 三 月

이십육일 卽本會의 始創紀念日이며 大 宗 師 로 서 난 當 年 二 十 六 歲 의 壯 年 이 시 다

自 此 以 後 로 난 大 宗 師 의 心 神 이 날 이 지 내 날 사 록 더 욱 明 朗 하 시 며 惓 惓 한 容 貌 와

皮骨相連한 體身에 血 肉 이 充 滿 하 야 열 키 고 열 것 든 문 은 病 症 도 次 々 勿 藥 自 效

되시였다

(註) 大 宗 師 의 得 道 하 신 後 初 音 異 常 한 것 은 그 形 貌 의 變 態 이 시 니 여 러 해 동 안

愁雲에 쌓였든病色이 一朝滌去되시고 皮膚가潤滑하고 形貌의光明이 더욱 날
아나며 그英明한氣像이 萬類에卓然하여 보는자로하여금 누구나精神이恍
惚치안할수없게되었었다

吉龍里는元來 山峽窮村으로 漢文常識을가진者가 甚히稀少하였고 大宗師
께서도 幼時부터그受學의時日(二個年間)이 너머나淺短하섯음으로在來宗敎의
敎義와傳史를들으신바가 實로없으섯다 그러나듯고보신바가없이 스사로願
을發하시고 스사로精誠을다하시고 스사로定에드르시고 스사로大覺을어드
시사 畢竟은千萬敎法의大小本末을 一理로써貫通하섯으니이른곳 永劫에修
道의習慣이昧하지않으신 所致라고생각된다

(以上二節은著者의意思를敷演한것)

生衛

분만해산 주의의점
分娩(解産)에注意할點

해산 解産은 인간에 가장重大한問題요 女子로서 極히어려운일이다 조곰만
주의 注意하여도 母子의生命이 不幸하게되는만큼 極히注意를要한다

사도를 버리고 정도를 행하면 궤가 없으리라
도를 배우고 저할진댄 항상 자성을 보라
공제를 도로 더부러 들림이 없으리라
과거 부처도 오죽이 돈오하는 법을 전하셨나니
견성해서 동일체 되기를 넓이 원할지어다
만약 당래의 법신을 찾고 저할진댄
몸은 법상을 떠나서 마음을 씻출 것이오
스스로 견성에 노력하려거든 유심히 말나
한 생각이 홀연 끈어지면 한 세상이 쉬리라
만약 대승을 갓쳐 견성을 얻으려거든
공경히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할지어다

佛法研究會創建史

第六章 大宗師佛法에對한內定

대종사 大宗師께서 道를 얻으신後로 心獨喜自負하사 그經路를生覺하시되 順序알기

가 어렵다하시고 강연이그말을하자면 自力으로求하난中 四恩의도음이라고하

시였다 또生覺하시되 東洋道學에는 儒佛仙의經傳과 近來에맺가지新興宗敎

의學說이있고 西洋에도 또한여러가지學說이있다하나 至今까지 그몬은敎義

를仔詳히들어본적이없었으니 내이제 그敎義의綱領을한번參考하야 내의얼은

바에 對照하여보리라하시고 親近者에게付託하야 그經傳畧干을求得하야 大

畧閱覽하신後 大衆師 嘆息하여가라사대 내의아는바는 古人이또한 먼저알

앗도다하시고 이어서 生覺하시되 몬은經傳의義旨가 大槩適切하야 別로바

릴바가적으나 그中에도또한眞理의淺深이있는바 그根本的眞理를發明하기에는

佛法이第一이라하시고 또는나의發心動機로볼어 그得道한經路를回顧한다면

몬은일이 偶然中 過去부처님말삼에符合된바가있으니 내將次道門을열을時

는 佛法으로써 主體를삼고 몬은敎法도 또한맛당한바를따라 應用하야 道

德의眞理를 다시이世上에闡明하여 完全無缺한會上을일우워보리라 內定하

시였다

(註)

대종사 당시경전열람
 大宗師의當時經傳閱覽하신것은儒書의四書와또는小學이며佛書의金剛經禪
 요불교대전팔상록 전서 음부경육추경 천도교동경대전가사
 要佛敎大全八相錄이며仙書의陰符經玉樞經이며大道敎東經大全歌詞이며耶
 소교신구약등 중 특 금강경 몽중소감 경명
 蘇敎新舊約等인바그中에特히金剛經은夢中所感으로그經名을알으섯다고한
 다

第七章 大宗師現社會를보신첫感想

대종사
 大宗師께서 안으로물은敎法을參考하신後 다시밖으로 現社會를觀察하시
 時

국대 감상 발표
 局에對한感想을發表하시니 그原文은 아래와같다

修身의要法

시대 시대
 一、時代를따라 學業에從事하여 學問을準備할것ियो

정신 수양력 능
 二、精神에 修養力이能하여야 分數직히난대에 安定을얻으며 喜怒哀樂의境

우당 정의
 三、遇를當하여도 正義를 잃지안이할것ियो

단 리치 연구력 능 허위 사실 분석
 四、일과理致에 研究力이能하여야 虛僞와事實을分析하며 是非와利害에 判

응용 취사 주의심
 五、斷함이빠를것ियो

응용 취사 주의심 지행
 六、應用할때 取捨하난注意心을 늦치아니하고 知行을같이하여야할것이니라

齊家제가의 要法요법

一、實業실업과 衣食住의식주를 完全완전히 하고 每日收入支出매일 수입지출을 對照대조하여 勤儉貯蓄근검저축하기를 主주

張장할 것이요

二、戶主호주자된 者자가 見聞견문과 學業학업을 이저바리지 않아 하며 子女자녀의 教育方策교육방책을 이저바리

지아니하며 責任책임을 이저바리지 아니할 것이요

三、家眷가권이 서로 和睦화목하며 意見交換의견교환하기를 主張주장할 것이요

四、內面내면으로 心理심리 밝혀주난 道德도덕의 師友사우가 있으며 外面외면으로 規則규칙 밝혀주난

政治정치의 服從복종이 있어야 할 것이요

五、過去과거와 現在현재의 是가정은 家庭가정이 希望희망과 機關기관으로 安樂안락한 家庭가정이

되었으며 失敗실패한 家庭가정이 되었는가 參照참조하기를 注意주의할 것이니라

強者강자와 弱者약자의 進化진화上 要法요법

一、強弱강약의 大旨대지를 聽강자어 말하면 某事모사를 勿論물론하고 是강기는 것은 強강이요 是강지나

은 弱약이라 強者강자는 弱者약자로써 強의 目的강 목적을 達달하고 弱者약자는 強강으로써 強을 얻

고 故로 서로依支하고 서로바탕하야 親不親이 있나니라

二、

强者는 弱者에 對하야 强을 베푸를 때에 自利他에 近치며 弱者를 强

者로 進化식히 난대에 近치난 것이 永遠한 强者가 될 것이요 弱者는 强者로써

先導者를 삼고 어떠한 千萬苦가 있다 하여도 弱者의 자리에서 强者의 자리

에 가드락까지 進歩하야 가난 것이 닳이 없는 强者가 될 것이다 强者가 强者노

릇을 할 때에 어찌하면 이 强이 永遠한 强이 되고 어찌하면 强이 變하야 弱

이 되 난 것인지 생각업시 다 勿自利他害에 만 굶치고 보면 强者로써 弱者

가 될 것이요

弱者는 强者되기 前에 어찌하면 弱者가 變하야 强者되고 어찌하면 强

者가 變하야 弱者되 난 것인지 生覺없이 다 勿强者를 對抗하기로 만하고 弱

者가 强者되 난 理致를 찾이 못하난 것이 永遠한 弱者가 될 것이다

三、

强으로써 永遠한 强을 얻은 사람은 過去에 堯舜과 釋迦牟尼佛이요 强으

로써 弱을 얻은 사람은 過去에 秦始皇과 項羽와 近世獨逸의 일헤름 제

二世카이 제일이니라

지도인 指導人으로서 準備할 要法

- 一、指導를 받는 者의 以上知識을 가질 일
- 二、指導를 받는 者에게 信用을 일치 말 일
- 三、指導를 받는 者에게 私利를 취하지 말 일
- 四、일을 當할 때 마다 知行을 對照할 일

第八章 工夫人의 첫 集會

대종사 大宗師께서 스사로 生覺하시되 이제 나의 아는 바는 苦海에 빠진 一切衆生을 樂園으로 濟
 的한 바는 苦道德을 이 世上에 創建하여 苦海에 빠진 一切衆生을 樂園으로 濟
 度하자는 바가 안인가? 그러나 現在形便으로 본다면 道門을 열 만한 基礎가 하나도
 가 추지 못하였으니 첫째는 내가 衆人의 보는 바에 얼마 前까지도 癡人의 評判을
 받았고 또는 前者에 어 떠한 道家에 出入하여 그 學理를 배와 온 바가 없었으니 平
 범 안목 凡한 眼目으로 쓰여 어찌 내의 內部를 眞實한 信念을 줄 것이며 둘째는 내
 가 根本權門家가 안이요 또는 父母의 畧干遺産은 임의 蕩盡하였음으로 會上設

備에 物質의 根據가 또한 없게 되었으며 現下 門은 大衆은 實生活의 正法은 不

知하고 呼風喚雨와 移山渡水하난 虛僞迷信에만 精神이 도라가난대 日일을

將次어찌할고? 道를 얻기前에는 道를 얻지 못함으로써 恨일너니 道를 얻은後에

는 믿어주는 同志가 없음으로써 恨이로다 하시고 將次어떠한 期會를 기다리시

드니 때에 마침 甌山 教派가 四面에 일어나서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 致誠

하고 呪文을 읽으면 精誠이 至極한 사람에게 난 三日 通靈 或은 七日 通靈으로

天帝와 對話하며 人間 疾病을 다 낫게 한다 하야 門은 人心을 衝動케 하는 中 吉龍里

附近에도 그 教의 傳播가 자못 盛行하는 지라 大宗師께서 生覺하시되 내가 맛

당히 期會를 利用하야 方便으로써 여러 사람의 團結과 信仰을 얻은後에 程

度를 따라 次々 正法 教化를 하리라 決心하시고 七月 頃에 親히 그 教派 宣傳員을 請하

야 그 致誠하고 呪誦하는 節次를 물으신後 精淨한 場所를 選擇하야 옛사람 村人

으로 더부러 致齊 誦呪하시되 그 精誠드린 形狀을 特別히 여러 사람의 眼目에 보

이게 하시고 七日을 지낸後에는 普通 生覺으로는 可以 推想할 수 없나 말삼과 또

는 不知中 好奇心이 나게 할만한 態度로써 左右 門은 사람의 精神을 恍惚케 하시니

몬은사람들은 대단신기 大端神奇히여기여 대종사 大宗師가 사실천제 事實天帝와 대화 對話를하신다하야 불 不

과수월 인근각처 隣近各處에서 신종 信從한者 사십여인 四十餘人에 달 達하였다

大宗師께서 방편 처음方便에 사십여인 四十餘人의 신자 信者를얻으사 래왕 서로來往한지 사오개월 四五個月이

지내었으나 신자 그一信者로말하면 대개 大概가 근본적신령 根本的의 일시적허영심 信念이안이요 통제적생활 一時的虛榮心으

로써 가위부평초 可謂浮萍草같은信이며 재래 또는在來에도 통제적생활 어떠한統制的의生活을 하여본바 하여本바

가없든사람들로 오합지중 鳥合之衆이라할수있다 대종사 大宗師께서 현 그몬은사람의現

況을觀察하신後 후 四十餘人을 일울적지도 一律的의 당분간중지 指導하실生覺을 중 當分間中止하시고 그中

에서 특별 特別히 진실 眞實하고 신령 信念 굳은者 자 몇사람을 선택 選擇하야 정력 精力量을더하시고

實情을通하시여 회상 첫會上의 표준제자 標準弟子로써 장차 將次몬은사람의 신앙 信仰을 인도 引導하리라하

시고 선택 먼저달사람을選擇하셨으니 성명 그姓名은 아래와같다

- 一、김성섭 金成燮
- 二、김성구 金聖久
- 三、박한석 朴漢碩
- 四、오재걸 吳在謙
- 五、러인명 李仁明
- 六、박경문 朴京文

- 七、류성국 劉成國
- 八、러재풍 李載馮

右八人中 번 첫番맛난弟子는 김성섭 金成燮이니 성섭 成燮은 본래대종사 本來大宗師의 가정 家庭과 교 서로交

誼가있고 유시 또는幼時로불어 성장 같이成長하였음으로 친절 가장親切함이 동기형제 同氣兄弟와같

中 대종사 임정친후 大宗師의 入定前後에 만은 補助와 慰勞가 있었고 그 다음 朴漢碩은 大
 宗師의 親弟이고 劉成國은 外叔이며 朴京文은 族姪이요 李仁明 金聖久 吳
 在謙은 모다 知友이며 李載馮은 吳在謙의 指導로써 처음 拜見하였다 한다

逸話

吳乃辰의 이야기

大宗師께서 처음 八人을 選擇하실 때에 全面學山里에 居住하는 吳乃辰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豫選에 參詣하였드니 一日은 大宗師께서 八人을 한 끝에 모으
 시고 嚴肅한 威儀를 보이며 물어가라사대 諸君들이 이제 나를 좇는 것은
 그 뜻이 將次 무엇을 하기 爲함인가?
 八人 등이 一齊히 對答하여 가로대 將次 蒼生을 憐니 濟度하려고 誓願하나이
 다 大宗師가 라사대 諸君의 誓願은 此世上에 닷이 없는 큰 誓願이라 벌서 凡
 常한 사람의 心理에는 超越한 生覺이 나 반다시 天地虛空의 冥鑑이 있으리라
 하신 後 또 물어가라사대 萬一 이와 같은 誓願을 세우고 中途에 或變心이 있는 때

에는 어찌할 것인가? 하시고 묵々히 八人の答辯을 기다리시니 팔인등 八人 등이

모다 일심 一心을 모은後 후 各々 말하기를 등 萬一中途에 만일중도 變心이 있는 때는 변심 卽

時 시생명 生命으로 속죄 贖罪하여도 여한 餘恨이 없겠나이다 하였다 후 그後에 내진 乃辰이 어떠 어떠

한 사람의 유혹 誘惑을 당하였는지 이전신심 以前 신심 信心이 변 變해져서 다시 酒色에 주색 放蕩하고 패류 悖類

를 상종 相從하며 도로혀 大宗師와 일반동지 一般同志를 훼방 毀謗함이 심 甚한지라 때에 金聖

久가 광경 光景을 보고 내심 內心에 생각 生覺하기를 전자 前者에 내진 乃辰이 중 重한 맹서 盟誓

를 하고 지금 至今저와 같이 변심행동 變心行動을 감행 敢行하니 만일 萬一그 때에 서약 誓約한바가 영합 靈驗이 있을

진대는 내진 乃辰의 신변 身邊에 반다시 어떠한 죄벌 罪罰이 있을지니 내진 이제 내진 乃辰에 대 對한 령합 靈驗

有無를 보아서 장차 將次내의 신앙 信仰도 결정 決定하리라 하고 내진 어느날 대중사 大宗師를 내 謁하고 내 乃

辰의 변심상항 變心狀況을 보고 報告한後 후 前者에 내진 乃辰이 중 重한 맹 盟

誓를 하고 지금 至今저러케 변심 變心을 하였으니 전도 그 사람의 前途가 장차 將次그 맹서 盟誓와 같이

되겠음니까? 대중사 大宗師가 내진 乃辰이라 사대 내진 乃辰의 전도 前途를 판단 判斷은

하지 않으나 내진 乃辰이 맹서 그盟誓를 할 때에 보통 普通弄談에 만일 萬一眞心이

로써 하였다면 극중 極히 중 重하고 무단 無端한 허언 虛言

으로만生覺생각하리요하시였다 後후얼마를지나지않이하야 乃辰내진이가 醉酒취주한골
 에 突然急病돌연급병이發生발생하야 一夜之間일야지간에 드디여死亡사망하는지라 聖久성구가 그消息소식
 을듣고 크게悚懼송구하야 다시는 다른疑訝의아를내지못하고 一心일심으로써服從복종하엿
 고 그대에 叅詣참예하엿든 다른同志동지들도 모다恐懼공구하야 처음信根신근에 더욱큰
 도움이되얏섯다

第九章 團員의 첫組織

始創 一二年 (丁巳)

大宗師대종사께서 立세정직이 組團方法조단방법을講究강구하사 將次十方世界장차십방세계 門은사람의統治教化통치교화
 의法을制定법제정하섯으니 그要旨요지는 오즉한先生의 가르침으로써 遠近各處원근각처에 散住산주
 하는 千萬人천만을 高로訓練훈련하는 빠른方法방법인바 이제그大畧대략을말하자면 乾건
 坎 艮 震 巽 離 坤 兌 中央 應응하야 九人구인으로一團일단을삼고 團長一人단장일인
 을加가하야 九人구인의工夫공부와 事業사업을指導監督지도감독케하며 九團長구단장이 構成구성되난時시난 九團구단

장 일 단
團을 삼고
團長一人을
加하여
九團長의
工夫와
事業을
指導監督
케 하되

角 充 氏 房 心 尾 箕 斗 牛 女 虛 危 室 壁 奎 婁 胃 鼎 畢

參 井 鬼 柳 星 張 翼 軫 此二十八字의 順序를 應하여 九人 團

長을 角長이라 稱하여 一角 二角으로 至於九角長하고 九角長의 團長을

이라 稱하여 一充 二充으로 至於九充長하며 九充長의 團長을 底長이라 稱하

야 一底 二底로 至於九底長하되 以上 團長도 繼出되 난대로 此와 同樣으로 하

나니 다시 그 指導의 次序를 말하면 角長은 乾 坎 艮 震 巽 離 坤 兌

中央의 番號를 가진 九人을 統治하는 團長이요 充團은 九角長을 統治하는 團長

이며 氏長은 九充長을 統治하는 團長인바 以上 團長의 統治도 이와 같이 二十八

字의 番號를 따라서 幾千幾萬의 多數라도 指導할 수 있으나 그 指導하는 綱領을

또다시 말하면 恒常 九人에 지나지 않는 簡易한 組織이며 團의 種類에 있어서는

그 中에 特別히 正首位 團과 豫備首位 團이 있고 또는 몸은 사람의 處地와 發願과

실행 實行을 따라 專務出身 團 專務出身 期成 團 居塵 出塵 團 普通 團 合六種으로

써 區分한바 大宗師께서 먼저 八人을 選擇하신 것도 오직 이 組團을 豫備하셨든

정원
것이 다 그리하야 칠월이십육일에 비로소 남자정수위단 조직
남자정수위단 조직
七月二十六일에 비로소男子正首位團을組織하시었으니 그

정원
定員은 아래와 같다

乾李載馮

坎李仁明 巽朴京文

團長 大宗師 中央 宋道君

艮金聖久 離朴漢碩

坤劉成國

震吳在謙 兌金成燮

(註)

宋道君은 원래경복성주인 元來慶北星州人으로서 年少出家하야 道德의 正路를 찾이 못하

고 四面으로 彷徨하다가 戊午三月頃에 大宗師의 膝下에 오게 됨에 따라 서

동년 칠월경 同年七月頃에 드디어 中央團員으로 定하였다 團의 詳細內譯은 別冊團規

에 在함으로 此에 畧하였음!

안을 것이니 만약 이법을 깨쳐서 일념(一念)에 마음이 열이면 이불 지견이 열면
다고 할 것이니라

佛法研究會創建史

명 산

第十章 大宗師의 教化 方法과 本會 期成 組合

대종사 大宗師께서 이團을組織하신後 團員의 信誠이 날아남을 따라 더욱前進하여지
 나 아직 그 心中에 願하는바는 無理解하기 어려운 秘訣이며 難測한 神通妙
 術이며 수고업시 速히 되는 것 등이요 眞理의 妙體와 人道의 正義를 分析하는
 工夫는 願하지 않아 하며 設令 그 正法을 說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滋味잇
 는 理解를 가지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大宗師께서 이團員의 程度를 觀察
 하신後 正法出現은 時期尙早함을 看破하시고 種々하날에 祭祀하여 그 心理를
 結束케 하시고 親히 指導하실 말씀도 天帝의 말씀이라 하여 그 實行을 勸勉하시니
 團員等은 一切畏敬하여 大宗師의 말씀에는 아모리 어려운 일이라도 조곰도 어

그고 지체 遲滯한바가 얽난지라 차차법 이에 次々法을 정 定하신바 정식 먼저 正式으로 매월례회 每月例會

보는 방법 方法을 지시 指示하시니 삼순일 三旬日로서 회집 會集하되 신 信을 어긴者는 상당 相當한罰이잇

게하시고 신성진퇴 또는 誠誠名時讀이라는冊을두시사 대조 十日동안 지낸바 地內바 마음을 調査하야

그 信誠進退와 행실선부 行實善否를 신성 對照케하시니 단원등 團員等은 일변 一邊두려워하고 일변 一邊감

버하야 심리 그 心理의 結合됨과 신성 信誠의 徹底함이 다이를수 多이를수 없엇다 구분 區分하되 신성 信誠이

(註) 誠誠名時讀의 信誠調査하는法은 청 靑 홍 紅 후삼색 黑三色으로써 신성 信誠이

第一가는者는 자 그 名下에 청점 靑點을 票하고 홍점 그다음은 紅點 후점 그다음은 黑點을 票

하야 단원 團員의 信誠等級을 알게 알게 하신것이다 친 親히 作文과 시 詩

이때에 대종사 大宗師께서 종종 種々 金成變을 命하시 붓을 붓을 잡으라하시고 친 親히 作文과 시 詩

歌等을을푸사 원집 이것을 編集케하시고 의지 이름을 法義大全이라하시니 其外에 (其外에) 道白日蕭

와 心迹篇이라하는詩編이이섯^순 그 義旨가 심 甚히 神秘하야 보통 普通知見으로서는 가이 可以다 窺

지 대강 知할수 없엇으나 추상 이제 그 大綱을 推想해본다면 도덕 公道德의 正脉이 본회 本會道德을

지 세 世生한다는것과 세계대세 世界大勢가 역수 逆數가 지내면 순수 다시 順數가 온다는것과 본회 本會道德을

建設하려는計劃書等인듯하다 단원등 그리하야 법의대전등 團員等은 법의대전등 이 法義大全等諸編을 자미 滋味

잇게 신령고취 을 푸르고 노래 하야 자료 그 信念鼓吹에 발심조흥 또한 큰 資料가 되었다

(註) 法義大全等諸編은 대종사 大宗師께서 문의 그 文義가 비록 한 때의 발심조흥 發心助興은 될지언정

인간지도 人間을 指導하는 정식교과서 正式教科書가 안이라 하야 시창오년도 始創五年度에 취소명령 드디어 取消命令

이게 후세상 設습으로 그 後世上에 창설 다시 傳하지 못하였다 한다

팔월경 불법연구회기성조합 단원 八月頃에 佛法研究會期成組合을 創設하시 고 大宗師께서 團員의게 그 趣旨를 말삼하야 취지

가라사대 제군 諸君이 신앙 이의나를 信仰함이 제군 김퍼지고 생각 내가 또한 諸君을 生覺함이 김

퍼져서 평생 우리의 平生은 처지 서로 떠나지 못할 處地에 있는바 장차 우리가 將次 十方世界을

爲하야 공부 한가지 큰 工夫와 사업 事業을 하기로 하면 공부 먼저 工夫할 費用과 사업 事業할 資金을

예비 豫備치안 할 수 없고 실행 또는 이것을 實行하기로 하면 부득불 不得不 기관 어떠한 機關과 어떠한

조약 條約을 세워야 할 것임으로 내이제 내이제 기성조합 期成組合의 한 機關을 建設하야 래두 來頭에 묻은

일을 준비 準備하려 하노니 제군 諸君은 내의 指導에 신행 잘 信行하기를 바래노라 자 하시고 다

시물어 가라사대 제군 諸君가 온대 재래 在來 불어 술과 담배 담배를 먹난者 자 몇이나 되나고?

모다 답 答하야 가로대 세상 이것은 世上이 普通 보통 다 먹난 것임으로 저의 저의 等도 등 또한 다 먹고

지내왔나이다 대종사 大宗師 『술과 담배가 인생 우리 人生에 관계 어떠한 關係가 있스며 그것을 그것을

혹 或 먹지 않는 다 하여도 생명 유지 生命維持에 다른故障이 고장 업슬 것인가? 단원 등 團員等 『이것은

事實 사실 불필요 음식 不必要한 飲食으로서 방면 여러方面에 해 만은害는잇슬지언정 생명 유지 生命維持에對하

야는 아모關係가업다고 생각 生覺합니다 대종사 계군 가령 의복 大宗師 『諸君이假令 衣服을입는대 비

단옷을입우나 각자 벼옷을입우나 한서 방어 벼옷가온대에도 차별 조금조흔옷을입우나 차별 조금나즌

옷을입난것이 단원 등 의복 사치 各自의 몸을爲하야 한서 방어 寒暑를防禦하는대에는 차별 어떠한差別이잇든

고? 단원 등 團員等 『衣服의奢侈하고 검소 儉素함이 형식 그形式을꾸미는대에는 차별 비록다름이

잇스나 대종사 계군 가령 몸을爲하야 한서 방어 寒暑를防禦하는대는 차이 別로差異가업다고 생각 生覺합니다

大宗師 『諸君이假令 음식 飲食을먹난대 진수성찬 珍羞盛饌을 작만 하야 먹으나 작만하야 먹으나 소사 채경 蔬食菜羹을

작만하야 먹으나 단원 등 團員等 『음식 飲食의精하고 조 粗함이 일시적 比로一時的 차별 滋味에는다름이잇슬지나

든고? 구원 團員等 『생명 유지 生命을維持하고 생명 유지 粗함이 생명 유지 生命을維持하는대에는 생각 生覺합니다

그주림을救援하고 대종사 계군 生命을維持하는대에는 생각 別差異가업다고 생각 生覺합니다

大宗師 『諸君들이家庭産림을할대에 대종사 계군 假令一個月을標準하면 혹 或노는날이 몇날 몇날

이나되나고? 단원 등 團員等 『이것은저의等가온에도 정도 程度를따라 간각 各々다를지나 누 누

구를勿論하고 물론 一個月이면 간휴식 몇칠間休息은 생각 多 있을줄로 생각 生覺합니다

대종사 大宗師께서 이 | 여러 가지 答辯을 들으신後 無數히稱讚하시며 諸君의 말이 個

개 個人이 다 | 明言이로다 하시고 因하여 말삼하여 가라사대 우리의 經營한바 工夫

와 事業은 普通사람이 다 하는바가 안이며 普通사람이 다 하지 못한바를

하기로 하면 반다시 特別한생각과 特別한忍耐와 特別한勞力이 안이면 能히

성공 成功을 期約하지 못할 것이며 또는 우리의 現今生活이 무산자 처지

으니 衣服飲食과 其他各項用處에 特別한消費節約이 안이면 單幾圓의資金

을 判出하기가 어려울것이다 그런則 아까말한바와같이 我們的生命保護에

別必要업는 술과담배를 끈으되 在來의 每月分 얼마可量消費되는것을 參照하

야 그消費代金을 本組合에貯蓄하고 또는 衣服飲食等에 或節約할程度가 잇거

든 그것을斷行하여 節約된金額을 本組合에貯蓄하고 또는 在來의休息日을

程度에 따라 縮小하여 每月 特別勞働日을定하여 그收入된利益을 本組合에

貯蓄하고 또는 各自婦人의 付託하여 每時匙米 (今云佛米) 를集合貯蓄케하고

또는 前日에 實行하여 온 天祭에 對하여도 天帝께서 自今以後 一行事을廢하고

消費代額으로써 本組合에貯蓄하여 將來事業에 實用케하라는 分附가게시니

우리 가萬若 만약 以上 이상 에말한바 조항 至誠 지성 實行 실행 한다면 이것이 廢物 폐물 利用 이용

과 塵合泰山格 진합태산격 으로 장차 將次 자원 큰資源이 적립 積立 되야 積立 되야 我們的工夫 공부 와 사업 事業 하난 大에 환희복

반다시 完全한土臺를 완전 일울것이다하시니 단원등 團員等은 이 說 말 說을 듣고 多 모 다歡喜 환희 服 복

從하는지라 대종사 大宗師께서 친 親하 추합장 組合長이 되 되고 단원 團員으로 써 또한 조합원 組合員을

삼의사 정판대륙 그定款大畧을 초안 草案 하 新後 후 每月終旬日 매월종순일 로 저축수입일 貯蓄收納日을 정 定하고 그

實行을 獎勵하시나 조합원 不過數月 저축 貯蓄된金額 이 二百餘圓에 달 達하였다 대종사 大宗師께

서 동면부호 組合員을 명 命하시야 저축 貯蓄된金額 으로 木炭 목탄 購入을 하 라하시고 우일방 又一方으로는

同面富豪한사람의 채금사백원 債金四百圓을 대종사 또는 大宗師께서 준비 미리準備하였는 私 私

財四百圓을 판출 判出하시야 목탄 木炭을 구입당사 사하시나 매표대금 購入當時에는 매표대금 每俵代金이

二拾五錢乃至參拾錢이 철팔개월후차 七八個月後 매표대금 此를賣却할時는 일약이 每俵代金이 자금 一躍二

圓五拾錢 내자삼원 乃至參圓의 불과일년 暴騰을 드 보게되야 팔구천원 不過一年에 자금 드되야 자금 八九千圓의 資金을

得하였다 대종사 大宗師의 사백백원 私財百圓은 병진이후 丙辰以後 본택 本宅에 잔재 殘在한 가구등속 家具等屬 을 賣却 매각 作

錢하야 연차사 連次殖科로 사백원 四百圓의 금액 金額을 만드 드시어 조합 조합에 제공 提供한 것인 바 입 入

(註) 大宗師의 私財百圓은 병진이후 丙辰以後 본택 本宅에 잔재 殘在한 가구등속 家具等屬 을 賣却 매각 作

정당시

定當時에는

물품

그 물품을 두고도

全然運用

할 줄을 모르셨고

출정후

出定後에는

차

此를

운용

運用하야

그와 같은 자금

이 된 것이며

富豪의 四百圓借入은

當時組合信用으로

는

누구나 勿論하고

四百圓借金을

잘許諾지 안이 할程度이다

그러한中

大

宗師

께서

組合員을 對하야

債金 四百圓假量을

엇어 보라고 命令하시니

組合

員들은

그 容易치 못할것을

걱정하는中

그 翌日에 그 富豪가

金聖久

李仁明

二人을

請하야

自發적으로

四百圓貸付를

申込하야 주니

組合員等은

意外

의 成功을

김버하는 同時에

이것은 아 마 하 날이

우리의 事業을

도와 주심이라

하야

더욱 그 信心과

勇氣를 도읍게 되얏고

木炭貿易은

歐州大戰時에

時勢

의 大變動을 當하야

그와 같은 利益을

엇게 된 것이다

十月頃에

大宗師께서

本事業의 創立限度를 定하시재

十二年式一回로써

三回

를 定하시고

始創紀元은

大宗師의 得道하신

丙辰三月二十六日로

定하시다

(詳細內譯은 六大要領에 잇슴)

佛불法법研연究구會회創창建건史사

당 상

第十一章 防堰役事와 會室建築

始創參年戊午

삼월경

대종사

본조합

자금

수집

후 조합원등

조합원등

三月頃에 大宗師께서 本組合의 資金을 收集하신後 組合員等의 게일너가라사

대 이제는 어떠한 事業이나 可以經營할만한 畧干의 基本金을 얻었으니 이것은

사업

가이경영

심중

약간 기본금

계획

로써 무엇이랴도着手하여야 할 것인바 내의 心中에 일직이 한 計劃이 있으니 諸

君은 이 말을 잘 生覺해 보라 하시고 因하여 吉龍里 前面에 海水來往하는 干瀉地를

생각

중인

인

갈용려전면

방면

해수래왕

작답

간사지

불과

갈라쳐가라사대 이것은 衆人의 바린바라 우리가 防堰하여 作畚할진대는 不過

중인

폐물리용

인

개척사업

노력

국가사

불과

幾年에 完全한 土地가 될뿐 아니라 廢物利用에 因하여 비록적으나마 또한 國家社

會의 生産中한 도음이 될 것아니

완전 로지

중인

폐물리용

인

개척사업

노력

국가사

불과

會의 生産中한 도음이 될 것아니

우리는 이러한 開拓事業에 努力하여 처음부터 이

公益의 길을

나어감이 어떠하냐! 하시니

조합원등

원래신령

독실

중

조합원등

원래신령

독실

중

公益의 길을

兼하여

경험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兼하여

이 구동성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兼하여

이 구동성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兼하여

이 구동성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兼하여

이 구동성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대종사

兼하여

의弱한 힘으로 써 이 巨大事를着手하기로 하면 이席上에서 한가言諾만 할 것이

아니라 반다시徹底한生覺과 犧牲的努力을 미리決心하여야 할지니 諸君은 오

죽純一한 마음으로 至死不變하겠다는 誓約二通을 써서 一通은天地虛空에 그

事由를告白하고 一通은本組合에保管하여 後日에証明케 하라 하시니 組合員等

은一齊히從命하여 各々嚴肅한 마음으로 誓約을 올니니 그誓約의原文은 아래

와 같다

서약서 誓約書

우리들은多幸히 大道大德의 初創時代를當하여 猥濫이 團員의 重한 責任을 當

엇는바 마음은한師門에 맞치고 몸을公衆事에 다하여 永遠한 一生을 이에決

定하옵고 먼저防堰工事を着手하오니 오죽여덜몸이 한몸이 되고 여덜마

음이 한마음이 되어야 榮辱苦樂에 進退를 같이 하며 비록千辛萬苦와 陷之死地

를 當할지라도 조곰도退轉치안 이하고 後悔치 아니하고 怨望치안 이하여

終身도록 그一心을 變하지 안기로써 血心誓約하오니

天地神明은 一齊히洞燭하사 萬一이誓約에 어긴者 있거든 밝히罪를테루소서

하야 단기백원 이상 單幾百圓以上의 자산 資產을 가진 자 자 者가 적었으니 만일 공사 중 萬一工事中 금전 결핍 金錢缺乏이 될 시 時

는 합자판 다시 金錢判出할 능력 能力이 없으리라고 본 것! 당시 영광촌락 當時靈光村落에는 조직 組

합 합자판 습이라는 合資機關을 방언역사 보지 못하였고 대종사 더욱이 防堰役事에 대 對하여는 당신 가정 그 實地的 工事

를 비평 처음 보게 된 것! 대종사 셋째는 삼년 전 大宗師께서 당신 三年前까지 가정 當身의 家庭하나도 무단 다

사리지 못하였다는 批評이 비평 여러 사람의 惱髓에 남아 있는 것! 조소 넷째는 무단 無端한 猜忌

로 남의 事業을 당시 외인 중대평 보기 싫혀하는 것 등 등 이 몇가지로 조소 그와 같을 嘲笑가 있엇든 것이다

(逸話) 당시 외인 중대평 當時外人中 批評의 한 이야기

방언 당시 연근촌인중 防堰當時에 모동 隣近村人中에서는 흔답 이러한 問答이 있엇다

(甲) 이사이드르니 모동 아某等이 길용리 해변해수지 吉龍里前面海水地에 堰을 막는 다지?

(乙) 글세 일전 나도 日前에 測量한다고 독향 단이는 것을 보았지!

(甲) 허々참 세상 世上에 別일도 만여 있어 길용리 해변 吉龍里海面이 한 限없는 歲月을 지내왔으되

이 전어륜들도 생의 이것을 막지 안하였고 부근 이 附近에 유세 부자 有勢한 富者가 많이었으되

아모도 막을 生意를 생의 개지 안한 것이 어늘 권리 저러한 弱하고 정협 權利 없고 정협 經驗 없는 사

람들이 차금 어찌 다른 사람의 차금 至수까지 하지 못한 일을 한단 말인가 한단 말인가 참우슬 일어 참우슬 일어 로다

(乙) 그것은單純히 그것만生覺할것은안일세 古人이하지못한일을 今人이

或할수도있고 有勢한者가하지못한일을 貧弱한사람이團合하야 或할수도있

는것이안인가? 또들으니 이사이그사람들이 寸을貿易하야 만은利益을얻

엇다하니 그內面에 어떠한準備가있는지를 우리가다알것인가?

(甲) (奮然한態度로)자네말도或그럴듯하네만은 그사람들程度를 한번生覺

해보소 百가지가운대 한가지나믿을것이무엇있는자? 設令 寸을貿易하야

만은利益을얻엇다할지라도 그돈이얼마나될것인가? 얼마지내지안이하야

아까운돈만 바다속에버리고 組合도못하고 싸흔하고 南北으로갈닐것이네

하며 萬一그사람들이 堰을完成하야 그海面에完全한穀物이서게된다면 나

는손가락에불을써가지고 하늘에올나가지!

(乙) 자네말은 너무나極斷的이네그려 그러면자네말과같이된다면 그사람들

의前途는 어찌될것인가하였다 또한사람은 어느教會에出入하든바 大宗師

를特別히訪問하고 말하기를 『先生이至今 어느때인지알지못하고 閑漫한防堰

工事を着手하였으니 참! 哀惜한일이로다 좋은時代가곳迫頭하였으니 至今

이라도 그防堰을中止하고 防堰할費用金으로써 우리敎會에提供하시면 不遠한

將來에 可 말할수 없는榮光을 누리것인즉 이때에 있어서 한번覺醒할必要가 있다고

生覺합니다』大宗師 內心에 웃으시고 答하시기를 『先生이 趣即 그러한 말을 하

엇든들 此 일을 根本始作하지안하였을것을! 既爲始作하고 보니 此所謂取捨兩

難이로다』그사람 『取捨兩難될것우엇있음니까? 어려운것을늦코 쉬운일을取

하며 더딘것을늦코 速한것을取하는것은 事理의當然한바이라 다른生覺하지

말으시고 몇칠後에 내가 사람을보낼터이니 于先千圓하나만 納付함이어떠합

니까』하였다 大宗師께서 그럴듯한態度를보이셨드니 그날에果然 사람을보

낸일까지있었다 世上事는 恒常翻復이만코 事實과虛僞는 반다시끝이다른지

라 後十餘年을지내서는 그嘲笑하든사람들은 門은豫言과 壯談이다들어

가고 오즉生活困難만極度에達하야 어느때는 靈山會室(現靈光支部)에와서堰

番小作을請하였다하며 千圓納付하라는그사람도 마침내좋은榮光을보지못하고

또한生活이困窮하야 堰番作人을 志願한일이있었다 이때에隣近에居住하

는 富豪한사람이있으니 그는元來 本面に世居한사람으로서 門闕이또한有勢

하든바 조합원 組合員의 방인공사 防堰工事に着手함을 보고 본쟁 紛爭을 일으키여 간사지대부원 干瀉地貸付願

書를 쌍방제출 雙方提出한後 관계당국 關係當局에 頻繁이 出入하야 운동 運動이 甚히 猛烈하니 좌우 左右傍

觀者들은 사태 多事態의 趨勢만 보고 이 토지권 土地權이 將次 부호 富豪의 所有가 될 줄을

豫斷하는者까지 있는 同時에 조합원 組合員의 힘된 勞力에 對하야 생각 만이 民망한 生覺을 가진

者도 있고 또는 조합원중 組合員中에서도 대단 大端히 落心하며 부호 富豪를 窺이 원망 怨望한 態度를

보이는者도 있섯다 대종사 大宗師께서는 조합원 組合員의 게일너 가라사대 공사중 工事中에 이리

한 紛爭이 생긴것은 정성 精誠을 시험 試驗하려 하심인듯하니 세군 諸君은 조곰도

거기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사락을 미워하고 원망 怨望하지도 말나 일은 반다시 바르든대

로 도라오는것이 리치 理致의 當然함이 어니와 설령 設令우리의 勞力한바가 노력 힘도 이저사람

의 所有로 본의 된다 할지라도 양심 良心에 愧그려 울바가 없으며 또는 우

리의 本意가 항상 恒常公衆을 爲하야 활동 活動하기로 하였으니 계획 比 록 처음 計劃과 같이 대 大

衆을 爲하야 사용 使用하지는 못하나 대중중 大衆中한 사람은 되는 것인슈 대 大

못한 사람의 게라도 리익 그만한 利益을 주지 안는가? 제군 諸君은 自他的 關

念을 超越하고 공중 오족 公衆을 爲하는 生覺만 으로 근심 勤實히 勞力할 지어 다 하시니 조합 組合

원등은 이 법은 法說을 듣고 더욱 感嘆心을 내어 工事を如前히 進行하였드나

그 후에 貸付許可書가 多幸히 本組合으로 나게 되나 紛爭은 드디여 事實으로 解決

되고 一般觀衆의 組合에 對한 信賴도 또한 一層 固어졌다 十月에 玉女峯下에

本組合室 建築을着手하여 十二月에 此를 竣功하다 自丙辰以後로 組合員의 集會

場所가 一定치 못하여 처음은 汎懸洞에 있는 李氏祭閣 一隅를 借用하였고 다음

은 江邊酒店을 臨時防堰管理所로 定하였으나 모다 陝窄하고 또는 여러 가지

行事に 自由롭지 못하여 大端 不便을 느끼고 있던中 이에 비로소 建築을 起工한 것

안바 組合員等이 一邊은 防堰에 從事하고 一邊은 家役에 從事하여 山에 올라

나무를 베고 땅을 녹혀 흙을 이겨서 風雪을 무릅쓰고 僅々히 成造를 畢役하니

이것이곳 本會의 가장 처음 建設된 會室이 었다 (汎懸洞과 江邊은 吉龍裡 區內 洞名)

(註) 大宗師께서 그 會室上 樑에 씨가 라사대 『校圓機日月 織春秋法呂』라 하

시고 또 그 아래에 써 갈아사대 『松收萬木餘春立 溪合千峰細雨鳴』이라고 하사다

어 때에 大宗師께서 낮에 난 工事を 總監하사 暫時도 休暇의 餘裕가 없으시고 밤이

면 또한 教化에 專力하사 法說으로써 深更을 지내실 때 가 만 으 시 나 組合員等은 비

獨그와같은 過한勞力을할치라도 每夜에大宗師를되시고 法說하는滋味가 恒
 常津々하야 그安樂한心境과 闊達한態度는 다일을수없으며 知慧의길도漸次
 開拓되야 在來의가졌든 虛榮의마음이 次々眞心으로轉換되고 迷信의生覺이
 次々正信으로돌아오며 他人에만依賴하던그思想이 次々自力을알게되야 工夫
 의程度도 또한進歩가된바不少하였다

始創四年已未

三月에防堰工事が竣功되니 工事期間은 滿一個年이요 開墾面積은畧十數町步

이라 이것어비록 廣泛한面積은안일지나 本會에있어서 가장처음基礎되는

貴重한土地이며 大宗師以下一般團員의 血心勞力한結晶이라아나할수없다 이

防堰에對하야 精神과 肉身과 財力을合하야 專力的勞力한者는 勿論八人

組合員이어나와 그外에도 肉身과 財力으로써 直接或間接으로 後援한者가

있었으나 그氏名은아래와같다

- 劉正天 辛正浪 李願華 梁夏雲 金順天 金華玉 徐奇彩 朴永煥 金明朗
- 劉奇滿 金永喆 申練淑 宋碧照 金東順 辛正權 李共珠 李東安 李雲外

(註) 金東順은 始創六年(辛酉)에 水門役事時補助가 있었노 李共珠는 始創

十五年(丁卯)에 防堰時負債餘條를 擔當報償하였으며 其外는 모다 防堰時

에 肉身 又是 財力으로 各々 隨勢補助한 것이 다 防堰工事が 畢한 後에도 組合

員의 勞力과 苦生은 또한 쉬지 안 하였으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弱한 힘으로

僅々히 工事は 맞았으나 堰의 製作이 아주 堅固치 못하고 또한 兼하여 四五年間

은 海毒이 未盡함으로 每年 作農한 바가 大槩 損失을 當하게 되니 조금도 餘力과

後援이 없는 組合員의 處地에서 그 困窮狀態가 다 形言할 수 없었으나 오죽

團의 信誠으로 그 難關을 無事히 經過하고 提堰도 또한 잘 保護하여 漸々 完全한 土

地를 만들어 왔었다

(逸話) 私心을 警戒하는 自然의 威力 防堰을 맞이하고 처음 開墾을 始作할 際에 大宗師께서 물은 組合員의 各々

作番 區域을 指定해 주시고 그 作番된 土地는 開墾當人의 私家小作地로 使用하

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作番할 때에 役處가 만하고 土品이 좋치 못헌 끝을

서로 할나고 하는 사람이 참내의 同志라 하시었단대 한 組合員이 生覺하기를 開

중역처 墾中役處가 적고 土品이 第一良好한 要處를 選擇하야 臆져 自己의 小作地를

定하리라 決心하고 將次大宗師와 同志의 對말삼하러 하엿으나 良心에 未安

을 늦긴 바있어서 外面上發表는 안이 하고 잇든中 맞참大雨가 와서 防堰이 潰缺

되야 堰番에 水災를 입게 되얏는지라 그 組合員이 먼저 나와서 水害處를 調査하

다가 勿동만 늦김을 얻게 되얏으니 곳다음이 아니라 自己의 內心에 小作地로

써 獨點하려 든 그 限界가 맞치 計劃線과 같이 全部被害를 當하엿고 其外에 다른

被害處는 없게 된 것이 다 이것을 본 그 組合員은 크게 驚惶하야 다시 生覺하되

小作地의 要處를 點領하러 합이 비록 利慾에 不過한 것이 나 이와 같은 境界에

公正할 精神을 가지지 못하고 暗然히 私々한 慾心에 끌리게 된다면 將次 큰 利害

자잇는 境遇에는 어찌 그 公心을 조금이나 保存하게 되리요 이것은 大宗師의 敎

訓하심 聖意에 違反이 되고 一般同志로 더불어 서로 직혀 오든 約條를 忘却함

이안인가? 아제 天地虛空에서 나 의 心中萌芽된 私心을 알오시고 이와 같이

有標한 懲罰을 보이사 내 既往良心이 있는 以上에는 어찌 即刻으로 그 마음 을 懺悔하야 一般同志에 自白하지 안하리요 하고 大宗師와 同志 組合員의 會

集場所에 달녀와서 그經過事由를 일일 고백
 一々히告白하니 組合員等은 天意가 이와
 같이 明明々々하심을 驚嘆하는 同時에 그 信誠과 公心이 더욱 結束된바가 있었다
 한다

各地會合

익산총부

일일이 일(일요일)

본일은 본회창한제이회내 사백구회의예회이다
 오전십시에 라경양씨사회하 출석원을점명하니
 합구심한이였다 아어서예행순서들이행하고 송
 호상 라공주양씨의 회보소개가있은후 불은피
 를보고하고 폐회하다

일일이 일(일요일) 구

일일 고백 一々히告白하니 組合員等은 天意가 이와
 信誠과 公心이 더욱 結束된바가 있었다

본일은 본회창한제이회내 사백구회의예회이다
 오전십시에 정일지씨사회하 출석원을점명하니
 합구심철인이였다 제반순서를진행하고 송도성
 씨의주편하 회원수지강의가있었으며 「양심과악
 심」이란제로 라공주씨의강연이있은후 폐회하
 다

일일이 일(일요일)

본일은 본회창한제이회내 사백구회의예회이다
 오전십시에 정구일씨사회하 출석원을점명

대사 『뜻이 없으면 누가 맞당의 분별을 내나뇨』

현각 『분별도 또한 뜻이 없이니이다』

대사께서는 현각의 모 든 대답을 드르시고 크게 칭찬하신 후 하로밤 머물고 가라고 권하시였다. 그러 현각은 하로밤을 머무르든바 그 뒤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를 일니 일숙각(一宿覺)이라 불렀다 한다.

佛불法법研연究구會회創창建전史사

第十제二십章이團단員원의 祈기禱도

경 산

대종사 大宗師께서 방언역사 防堰役事를 맞인後 後 다시 九人團員을 한곳에 모으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現下物質文明은 金錢의 勢力을 擴昌하게 하여 줄 것으로 金錢의 勢力이

이와 같이 날로 隆盛하여 지니 이 勢力으로 因하여 個人 家庭 社會 國家가 모

다 安定을 얻지 못하고 물은 사람의 塗炭이 將次 限이 없게 될 것이니 團員된 우리로

써 어찌 이를 泛然히 生覺하고 있으리오 古來 賢聖도 一切 衆生을 爲하여

지성 至誠으로 天地에 祈禱한일이 있으니 諸君들이여 이때를 當하야 一番純一한마

음과 至極한精誠으로 써 물은 사람의 精神이 物慾에 걸니 지아니하고 物質을使

用하는 사람이 되야 주기를 祈禱하야 期於히 天意의 感動하심이 있게 할지어다

諸君의 마음은 곳하날의 性品이라 그러함으로 마음이 한번 純一하야 조곰도

私々한낫(個)이 없게 된다면 이는 곳天地로 더불어 德을 합하야 물은 일이다

그 마음을 따라 成功이 될지니 諸君은 各自의 마음에 能히 天地를 感動할만한 要素

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各自의 마음에 또한 衆生을 救援할 責任이 있음을 恒

常銘心하야 할 것이다 하시니 九人等은 惶恐喜悅한 마음으로 一齊히 指導하

심을 講하는지라 이에 三月二十六日로 始作하야 十日間 齋戒로써 每月三六日

에는 祈禱式을 舉行하되 治齋方式은 첫재마음 精潔을 爲主하고 戒文을 더욱 조심

하며 肉身에도 每月一次式 沐浴齋戒하고 祈禱當日은 午後八時以內로 一齋

히 教室에 會集하야 大宗師의 指示를 받은後 全九時頃에 祈禱場所로 出發케 하고

祈禱는 全十時로부터 十二時正刻(夜半)까지 하기로 하며 式을 맞인後에는 또한

一齊히 教室에 도라 오게 하되 團員이 各々時計一個式 手持하야 祈禱의 始作과

그침에 양봉 위시 서로 분각이 들니 분각 자안케 하고 장소 장소는 각각 각각 단원 방원 방원을 따라 정 정하되 중 중
 央峯으로 위시 위시 시작하야 팔방 팔방의 봉만 봉만을 지정 지정하고 단리 단리 團旗(現今會旗)를 제작 제작하야 기도 기도시
 에 장소 장소 주위 전립 전립 團所周圍에 식 식을 시작 시작할 때에 향축 향축 먼저 청수 청수를 진설 진설하고
 다음은 헌배 헌배 獻拜와 심고 심고 心告를 올니며 추문 추문 祝文을 독송 독송 讀誦하나니 대략 대략 그 대략 祝文의 대략 大畧은 아래 아래

祝文

團員某는 단원모 삼가히 齋戒 齋戒하옵고 일심 一心을 다하와 천지 天地 부모 父母 동포 同胞 법률 法律 사은 四恩

前에 발원 發願하옵나이다 대범 大凡 사람은 만물 萬物의 주인 主人이요 만물 萬物은 정신 精神의 사용물 使用物이

며 인도 人道는 인의 仁義가 주체 主體요 권모 權謀術數는 방편 那方便이니 정신 精神의 능히 能히 만물 萬物

을 지배 支配하고 인의 仁義의 대도 大道가 세상 世上에서 제 제되는 것은 리치 理致의 당연 當然함이 어날 만근 挽近以

來로 주장 그 主張이 위 位를 잃고 권모 權謀邪術이 세간 世間에 분동 紛騰하야 대도 大道가 크게 크게 지 지러울

새 본단 本團員等은 우 우흐로 대종사 大宗師의 성의 聖意를 받 받들고 일 一 반동 般同志의 결속 結束을 견고 堅固히

하야 시대 時代에 적합 適合한 정법 正法을 세상 世上에 건설 建設한 후 외회 外 회衰頹하가는 세도 世道人心

을 바로 바로잡거로 상심 誠心發願이 오니 부원 伏願 困恩이 시어 일 一 齊 齊하 감응 感應하시와 무궁 無窮한

威위력力력과 限제한없는 慈자비愍민보서 祈기도의 들의 願원하는 바를 祈기도일 우위 자게 하야 주치옵소서

○ (逸일話화)

○ (治치齋齋에 對대한 靈정驗험)

○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다 祈기도禱도를 始시작作후한 後후 어느 때에 團단員원中중한 자 람이 祈기도禱도當당日일에 大가 小가 家가事사에 奔은忙망하

금번 중벌
개 今番懲罰이 있음은 天地的威力을 目前에 表現함이니 天地虛空이 비록

소리(聲)와 내암(臭)이 없다 하나 그 밝음이 이와 같나니 諸君들이여 더욱 조

심하야 이 天地大事業에 글웃침이 없게 할지이다 하시니 萬一 그와 같이 남은 것이 없는 마음으로

實景을 보고 더욱 大宗師의 말씀에 畏服하야 그 條約을 직히고 一心을 모으는 대

에 一層 큰 힘이 되었다 한다 七月十六日 大宗師께서 다시 團員 諸人에게 일

나가라사대 諸君들이 至今까지 祈禱해 온 精誠은 甚히 壯한 바 있으나 나의 徵

驗하는 바로서는 아직도 天意를 움족이는대는 그 距離가 逍遠하나니 이는

그래도 諸君의 마음가 온대 어떠한 私念이 남어 있는 연고이라 諸君이 事實로

人類世界를 爲한다고 할진대 諸君의 몸이 죽어 없어지드래도 우리의 正法이

世上에 들어나서 問은 蒼生이 道德의 救援만 받는다 면 조곰도 餘恨이 없이 그

일을 實行하겠는가? 團員一齊히 「그리하겠읍니다」 고 告答한대 大宗師 一層

더 嚴肅하신 語調로서 「네 말에 殺身成仁이란 말도 있고 또는 그를 實行하야 異蹟

을 날운 사람도 있었으니 諸君이 萬一 그와 같이 남은 것이 없는 마음으로 大

衆을 爲한다면 天地神明이 어찌 그 精誠에 感動치 아니하며 또는 그 所願에 成

功이 없게 되리요 불원 장래 도덕 정법 不遠한將來에 道德의 正法이 다시世上에出現되고 혼란한人

心이 심점차정돈 漸次整頓되야 蒼生의 幸福이 將次限이 없을지니 장차한 그리된다면 諸君은

곳世上을救援한救主이요 구원 구주 음덕 그陰德은 또한萬世를通하야 만세 통 滅하지아니하리라 그

러나 生死는 생사 인간대사 人間大事라 또한考慮치안홀수없는것이니 고려 미망 생작 團員中에 萬一조금

이라도 自身 家庭을 자신 가정 불논 勿論하고 未忘한生覺이 있어서 생명회생 生命犧性에남은限이있

다면 또한숨기지말고 생명회생 단행 곧말하라 생명회생 단행 그러한사람에난 生命은맞치지아니하고도

다른道理가있나니 도리 이것이 결 決코 諸君들의게 생명회생 단행 生命犧性을斷行하라는것은또한

안인즉 체면 구속 모다各自의마음에따라 응답 應答할것이요 만일육신회생 대 조곰도내의말에끝니거나 동지 同志

의體面에拘束되야 대답 對答하지는말지어다 만일육신회생 대 萬一肉身犧性에對하야 호리 毫厘라도 불 不

滿한生覺이心中에져여있다면 정성 精誠을맞친다할지라도 천지신 天地神

明은 차 此에感動치안을지니 제군 諸君은 점 이점을또한理解하야 실정 實情으로써 대답 對答하

기를바래노라하시니 구인등 九人等은 법설 이여러가지法說을듯고 잠간비장 태도 暫間悲壯한態度를보이

드니 지체 遲滯없이 일체 회생 고백 一齊히犧性하기로告白하는지라 대종사 大宗師께서 중찬 稱讚하여가라

사대 제군 諸君의오날날 천의 이마음은 천의 天意라 제군 天意를듯코 제군 어찌諸君의마음이따로

있으며 諸君의 마음을 늦고 여기 天意가 따로 있으시오 하시고 이어 十日間

治齊를 더하게 하사 오느 祈禱日 卽七月二十六日으로써 最後犧牲日로定하고 그

날은 每人下 短刀一枚式準備하였다가 各衣祈禱場所에 가서 그時間正刻에

一齊히自手하기로 約束하였다 於焉間 二十六日이當到할애 九人等은 모다

滿面의喜色으로써 各々銳利한短刀一枚式을가지고時間前期에 一齊히敎堂에會

集하는지라 大宗師물어가라사대 諸君들이 巴魯公事를爲한精誠이 至極하나

누구나 勿論하고 肉身犧牲을當할時는 조금이라도 슬픈마음이있난것이어날

이제諸君의氣像을살여본즉 모다喜色이滿面하였으니 이犧性에對하여 이와

같은 기쁨까지잇난것은 아떠한理由인가 하노라 仇人等이 一齊히答하여가

로대 사람이生死타하난것은 누구나勿論하고 早晚間다잇는것이로대 十方世

界를爲하여 죽는다는것은 千萬人中가장잇기어려운바이며 또는저의筭이 本

來宗師主를맞나저못하였다면 平生에窮村農民으로 그思想이 恒常한家庭에버

어나지못하였을것이어늘 이제저의等 心中에 十方世界를 一家로보는 너룬

生覺을얻게되얏으니 그思想發展에 아떠큰光榮이어나며 또는 저의等의犧性

한功德으로 공덕 萬若十方世界衆生이 만약十方세계중생 永遠한幸福을받게된다면 영원행복 저의等に 등 돌아간다할지라도

일어나한 사업 큰事業이되겠음니까 의 저의等이 등 비록靈魂世界로 영혼세계 돌아간다할지라도

今世에서 현재 하고온일을記憶한다면 기억 恒常壯快한마음이 항상장쾌 마지안으리라 고 추측 推測됨

나다 활발 그리하야 자연중 이일 의색 저일을 생각 生覺하면 생각 生覺할사록 마음 마음이 대종사 김부고 기운 氣運

이 말 活潑하야 자연중 自然中 의면 外面에 날 아난것같읍니다 대종사 大宗師께서 그

말을 대종사 一々히들으시고 단원명 嗟嘆함을 마지 안아하셨다 그러 자 오후팔시 午後八時가됨에

大宗師께서 단원명 團員을命하시 청수일분 淸水一盃을 교실중앙 敎室中央에 전설 陳設케하시고 각각 各々가지고

온 단도 短刀를 청수상 淸水床우에 라열 羅列한後 일제 一齊히 사무여한 死無餘限이라는 최후중서 最後証書를 쓰서 各々

白指章을찍어서 상 床에올리게하시고 이 어서 결사 決死의意味로써 일제 一齊히 복지심고 伏地心告

를하께하셨든바 식 式이 후 後에 대종사 大宗師께서 그 指章찍은조히를살펴보시니

그指章찍은자리가 혈인 血印으로變하였는자라 대종사 大宗師께서 그 血印을들어 여러

團員의게보이시고 증서 말삼하여가라사대 이 것은 세군 諸君들의一心에서 날 아난証據

라하시고 구인등 冑그証書를 소화 燒火로告天하시고 바로 모은行裝을차려 祈禱場 所로 行 하라하시니 丸人等 丸人等이 一齊 히 時計 와 短刀 와 및 其他器具를携帶하고 各々

방위향 方位를向하야 出發하였다 大宗師께서 한참동안 그가는 뒷모양을보시고 卽

시드니 突然히큰소래로 불너가라사대 내가諸君들의게 한말을 더付託할바

가있으니 速히敎室노 도라오라고하셨다 團員等은 異常히역이면서 다시大

宗師의게되온대 大宗師가라사대 諸君들의 마음은 天地神明이 이의感應하였

고 陰府公事가 이제判決이났으니 今日에 諸君들의 生命을 期於히犧牲하

지안하여도 우리의成功은 오날로불어 비롯하였다하시고 이어서말삼하여가

라사대 諸君의몸은 卽十方世界에박친몸이라 이앞으로 將次永遠히 몬은일

을進行할때에 비록千辛萬苦와 陷地死地를當할지라도 오즉이때의 이마음을

變하지말고 또는 家庭愛着과 五慾의環境을 當할때에는 오즉 今日에죽은

세음만잡는다면 다시는 거기에붙이지안할지니 그그님이없는純一한生覺으로

工夫와事業에專務하야 卽니衆生濟度에 努力하라하시니 九人等은 大宗師의

말삼을듯고 여러가지의理解는 卽히 얻었으니 처음에 興奮된精神이 쉽게 鎮定

되지안하였다 十一時가지번後에 大宗師께서 다시團員을命하사 一齊히中央

峰에올나 祈禱를如前히맞이고 오게한後 이에各團員의게 法名과 法號를下

賜^사하여 가라사대 諸君^{제군}의 前日^{전일} 일흥은 曷^어 世俗^{세속}의 일흥이요 個人^{개인}의 私名^{사명}이 엿든바
 그 일흥을 가진 자는 伊^이의 族^족이 埋葬^{매장}되얏음으로 今^{이제} 世界^{세계} 公名^{공명}인 새 일흥을 주는바
 이니 삼가히 받들아가자서 衆生^{중생}을 濟度^{제도}하라 하시니 法名^{법명}과 法號^{법호}난 아래
 와 같다

俗名	李載馮	李仁明	金聖久	吳在謙	朴京文
法名	載馮載	旬載	幾旬	昌建	世喆
法號	一山	二山	三山	四山	五山
俗名	朴漢碩	劉成國	金成燮	宋道君	
法名	東局	劉巾	光旋	宋奎	
法號	六山	七山	八山	鼎山	

後^후에도 團員^{단원}의 祈禱^{기도}는 如^여 前^전히 繼續^{계속}하야 宗師^{大宗師}의 命^명 令^령에 依^의하야 進^진행하드니 全^동年^년 十^월 月^일 六^일 日^일에 日^일으러 大^대宗^종師^사의 命^명 令^령에 依^의하야 舉^거行^행하니 祈^{기도}禱^대에 對^대한 行^행事^사는 此^고에 告^공功^공하엿다

(附 意)

大^대宗^종師^사의 右^우記^기行^행事^사는 本^본會^회의 基^기礎^초的^적人^인物^물을 養^양成^성할 때 私^사를 除^제去^거하코 公^공을 세

우남대 결심 과립 크決心을紀念체하여주시는 방법 方法으로生覺됩니다

(著者の말)

비상시국경제생활에 대하여

一 記 者

시국은 점점중대하여 이앞으로도 장차얼마가끝날는지 자못예측을허락지않는 이때에있어서 우리의경제에대하여 자연관심을가지지않을수가없읍니다. 과연어떠케하면 우리가다—당하고있는 이난관을 무사히돌파하고 생활의안정을얻을것인가? 여기에대하여서는 맛당히 여러분 스스로의비상하각오와 특별한노력이있으면 도저히알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웨그러나하면 국가에전쟁이있는데에는 백물이등귀(騰貴)하여보통대물가의일배 이배 내지멧배이상으로올라갈수있는것입니다. 그것은 또 웨그러나하면 많은사람들이 전쟁에나가서 국가에봉공하게되는관계상 사 룡 공 상의생산자는 적고 군용기타의소비량은 갑작이종가가 되기때문에 백물이 등귀하여질것은 자연한형세

풍이 남아 있음으로 누구나勿論하고 佛敎의名稱을 가진者의 계난 尊敬의 意思가

적게 되나니 未開한 人心에 있어서 兼하여 時代의 尊敬이 적은 만차 法의 邪正眞

僞를 勿論하고 오즉 人心의 趨向을 따라서 順序 없난 敎化로써 한갓 發心 信仰에 만

注力하여 왔거니와 이제 그 本的 眞理를 發見하고 참다운 工夫를 成就하여 一切

衆生의 福慧兩路를 引導하기로 할진댄 不得已 이 佛法을 主人 삼지 안을 수 없

으며 그 뿐 만 안이라 未來 幾十年이 지나가면 將次 朝鮮의 主敎가 될 것이요 朝

鮮의 主敎가 된 뒤에는 또한 世界的 主敎가 될 줄로 豫想하는 바이다 그러나 未來

에 도라오는 佛法은 在來에 직히 오든 佛法의 制度가 아니라 士農工商을 여이

지 안이 하고 또는 在世出世를 勿論하고 一般的으로 工夫하는 佛法이 될 것이며

부처를 崇拜하는 것도 한갓 個別的 等像 佛에만 歸依할 것이 안이라 宇宙萬物虛

空을 다 부처로 알게 됨으로 일과 工夫가 따로 잇지 아니하고 世上 일을 잘 아

라 잘 행하면 그것이 佛法工夫를 잘하는 사람이요 工夫를 잘하면 世上 일

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또는 佛供하는 法도 佛供할 處所와 부처가

따로 잇난 것이 아니라 佛供者의 일과 願을 따라 그 佛供할 處所와 부처가 같니께

되나니 이리된다면 법당 업난곳이 업게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

木 賴及萬方이되야 상상치 못할 理想의天國이 되고말것이니 諸君이여 기

배할지어다 時代가비록 千萬番輪廻하나 이같은 機會맞나기가 어렵난대

우리는 多幸이맞나쓰며 許多한사람中에 아는사람이稀少하거날 우리는 어

찌다가 이런機會를 얻어 처음會上에 創立主가되얏쓰니 諸君은 오날에있

어서 아직 証明하지못할내의말일지라도 虛無하다生覺지말고 몸은指導에依

하야 次々지내가면 不遠한將來에 可히그實地를 보게될것이다하시니 團員

등은 一齊히김버하며 信受奉聽하는지라 大宗師께서 이에事業機關인 貯蓄

조합의일흔을곳치여 佛法研究會期成組合이라名稱하시고 其外본은記錄에도

一齊히佛法의名號를 쓰게하시니 때는本月十月六日이였다

제십사장 대종사 봉래산수양 본회 준비공작 第十四章 大宗師의蓬萊山修養과本會의準備工作

대종사 大宗師께서 일직히 入山을뒀하시니 三月頃에 吳昌建을다라시고 全北扶安郡

山內面月明菴에行次하시니 十餘日留連後 還駕하시고 七月頃에는 다시宋奎를

그곳에派遣하시니 未來根據를定케하시었더니 이에 이르러 團員의公事가 임의곳

남을 따라 조합 후속 사무 組合의 後續事務를 여러 사람의 各々 付託하고 幾年間 修養의

計劃을 세우샤 시일이십일 十月二十日에 吳昌建을 다려서고 月明菴에 行次하살새 團員과

靈光一般信者는 모다섭々한 눈물로써 大宗師를 拜別하였고 大宗師의 行色은

甚히 漂然하야 복잡진세 複雜한 塵世를 뒤에 두서고 靄霧를 向하야 神仙의 갈을 떠나신

늦김이 있었다 그리하야 西海沿邊을 巡廻하며 其翌日안 二十一日에 元日的

地인 月明菴에 到着하사나 오래동안 苦待하든 宋奎는 歡喜湧躍한 마음으로 拜

講하였고 당시 월명암 當時 月明菴 住持和尚 白鶴鳴도 또한 반가히 迎接하야 甚히 親切하

였다

(註) 大宗師의 蓬萊山行次는 그裏面에 어떠한 理由가 있었든가? 이제 그 大畧

을 말하자면 一은 오래 동안 複雜한 精神을 다시 休養하기 爲하심이요 二는

在來佛法의 敎理와 制度를 實地 參考하야 將次革新할 本會의 敎理와 制度를

草案하려 하심이요 三은 四方에 잇는 因緣을 서로 連絡하야 將次會門열 準

備를 하기 爲하심이요 四는 紛忙한 世上에 또한 衆人의 指目을 避하기 爲하심

안듯하다

대종사 大宗師께서 臨時月明庵에 留宿하사 朱子의 武夷九曲詩를 써서 靈光團員의 氣

불나시다 大에 全州金堤等地에 居住하든 宋赤壁 金南天 金慧月 李清風等

이 大 宗 師 의 消 息 을 探 知 하 고 覓 달 녀 와 서 膝 下 에 親 侍 하 기 를 自 願 하 는 지 라

이에 十二月頃에 蓬萊山 中央地인 實相寺後麓에 數間草屋을 買受하야 位

置를定하시교 數三弟子로더부러 艱苦한 처음살님을始作하시다

始創五年 (庚申)

대종사 大宗師께서 實相草屋에 계시사 當分間 修養에 專力하시더니 大에 靈光 金

堤 全州等地에 居住하는 信者等이 隱然中 서로 消息을 通하야 그 一深山窮谷

에 訪問하는 人員이 次々 繼續되난지라 大 宗 師 께서 一 邊 은 여 러 사 람 의 出 入

이 너 多 煩 할 가 念 慮 하 셧 으 나 一 邊 은 또 한 그 사 람 들 의 精 誠 에 感 應 하 사

每樣欣然迎接하시여 朝夕으로 講法論道함을 게울니지안이하시니 一 般 信者等은

心身이 더욱爽快하야 險路來往에 조곰도 疲勞를 느끼지안이하며 近侍한 弟

子等은 나제는 山田을 開拓하야 生活의 資料를 삼고 밤이 되면 또한 法席에 叅

詣하야 聽法樂道로써 滋味를 삼앗으니 當時의 法說要旨는 大 概 觀 心 入 定 과

현정정불 見性成佛하는 방법 만이說하시였다 삼월에 회성곡 소설 상중하편
을 지으셨으나 이도또한사람을 教化하는 正式教科書가 아니라하야 그後드 후
上中下篇

의여遺傳치않하였다한다 유전

四月에 大宗師께서 처음으로 本會教綱을 發表하시니 가로대 人生의 要道
사은사오 공부 요도 삼강령 팔조목 사은 천지 부모 同胞 法

四恩四要와 工夫의 要道 三綱領 八條目인바 四恩은 男女權利同一 智慧差別
를 피은 보은 배은 報恩 背恩을 말삼한것이요 四要는 남녀권리동일 지우차별

律의 被恩 報恩 背恩을 말삼한것이요 四要는 男女權利同一 智慧差別
무자녀자 타자녀교양 公道獻身者 以父事之를 말삼한것이니 이는 人人生

無子女者 他子女敎養 公道獻身者 以父事之를 말삼한것이니 이는 人人生
의 맛當히行할道로써 世上을 救援할要法이 되고 三綱領은 부처님이 말삼

하신 戒定慧를 鍛鍊하기爲하야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를 말삼한것
계정혜 단련 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니 이는곳 工夫人의 맛當히 밟을道로써 生靈을 濟度하는 要法이 되며 八條目
공부인 다당 다도 생령 제도 오법 팔조목

은 信念疑誠四條로써 進行力을 삼고 不信貪慾懶愚로써 捨捐件을 하나니 이
삼강령공부 진행력 불신탐욕라우 사연전

는 곳 三綱領工夫를 運動하는 要法이 되는바 그綱領이 甚히簡明하고 教
삼강령공부 운동 오법 그綱領이 심 간명 교

의 義가 甚히圓滿하야 一般信者로하야금 조공도 迷惑과 偏僻에 끝나지안
의심 원만 일반신자 오법 조공도 미혹 편벽

하고 바로 大道에 들게 하난 本會의 元定教法이시라 그리하야 四月以降으로
大道도 본회 원정교법

하고 바로 大道에 들게 하난 本會의 元定教法이시라 그리하야 四月以降으로
大道도 본회 원정교법

이 때에 대종사 大宗師께서 각지신도 各地信徒의 인원 人員이 점점증가 漸々增加됨을 단법시험 團法試驗

을 유월경 六月頃에는 영광지방 靈光地方에 남자일단 男子一團을 조직 組織하시고 팔월경 八月頃에

는 영광 靈光 김계 金堤 전주등지 全州等地를 합 合하여 남자일단 男子一團 여자일단 女子一團을 조직 組織하셨드니

그 후에 정원 定員이 동치 統治가 귀일 歸一치 못함으로써 장차후회 將次後回를 기 기

달여 실행 다시 實行하기로 하고 조단사무 組團事務를 당분간중지 當分間中止하시다

대종사 大宗師께서 신축정사 新築精舍에 계시사 조안 새로 草案된 교과서 教科書로 근거 써 여러 사람의 根機를 따라

예비훈련 豫備訓練을 시험 試驗해보시니 성적 그 成績이 심양호 甚히 良好하야 신자 몬은 信者의 정법 正法에 對한

리해 理解가 일층진보 一層進步하였다

(註) 대종사 大宗師의 병진이후 丙辰以後로 교화 教化하신 순서 順序를 약론 畧論하면 병진년 丙辰年은 법 어떠한 法을

인용 引用하든지 발심 오즉 發心으로써 교화 教化의 주체 主體를 삼으셨고 정사 丁巳 무오 戊午 거미 己未는 성리 性理

신성 信誠 단결 團結 공심등 公心等으로써 교화 教化의 주체 主體를 삼으셨고 정신년 庚申年 춘화간 春夏間은 성리 性理

설입정설 說과 入定說을 경신년 庚申年 추동이후 秋冬以後로는 신제교강 新制敎綱으로써 교 敎

화주체 化의 主體를 삼으시었다 삼으시었다

自始創七年(壬戌)至八年(癸亥)

대종사 大宗師께서 入山後 四年을 經過하시 將次 正式會門 열 만한 準備를 大略 맞치

시고 이 무下山의 時期를 기다리시며 內面으로 그 計劃을 生覺하시드니 壬戌

十二月頃에 吳昌建 宋道性을 다리시고 鎮安郡 聖壽面 萬德庵에 行駕하시

崔道華 田參參 全飮光等을 會見하시고 癸亥三月에 다시 蓬萊精舍에 還駕하

사 계시드니 五月頃에 金堤에 居住하는 徐東風 徐中安等을 만나시다

全年六月頃에 徐中安이 다시 그 婦人 鄭世月과 同伴하야 蓬萊精舍에 와서 大宗

師를 뵈옵고 말삼하여 가라대 이곳은 道路가 險難하야 交通이 甚히 不便하고

場所가 또한 陝窄하오니 交通과 場所가 便利한 곳을 選擇하야 門

은 사람의 前途를 넌나 引道하여 주심이 時代에 急務라 하야 至誠으로 懇請

하엿다 大宗師께서 드디어 그 말삼에 應諾하시 中安으로 더부러 將次 山을 떠

나서 正式會門 열 計劃을 議論하시드니 때에 맞참 靈光으로 붙어 母夫人의 病

報가 來到하얏는 지라 大宗師께서 中安과 더부러 다시 冬期에 相逢하기로 約

東을 定하시고 文正 奎를 다리시고 菑浦를 經由하야 水路로 急遽히 本宅에 返

駕하시다

대종사 大宗師께서 일즉이 下山을 뚫하신 後로 蓬萊會上에 關한 문은 文書를 整頓하시

그 有 功 成 績 을 考 查 한 바 있 었 으 니 그 氏 名 은 아 래 와 같 다

專 務 勞 力 者

金南天 宋赤壁 金慧月 李清風 宋道性 吳昌建 宋奎

後 援 者

김광선 李萬甲 具南守 金幾千 文正奎 李春風 徐中安 李一根 宋月守

張寂照 李大蓮華 崔道華 金東順 朴戶張 姜一生華 金正覺 張正守

洪青松月 李滿水月 趙順華 洪東月 李江蓮華 朴元石

대종사 大宗師께서 靈光에 還駕하신 後 今年七月頃에 母親喪事를 當하시와 哀痛中喪

葬禮을 畢하시다 이 때에 各地 信徒等이 大宗師를 되옵기 爲하야 靈光으로

會集하니 靈光敎室이 너무나 陝窄하야 門은 大衆을 容納하기가 甚히 不便

하고 또는 그 基地가 卑濕하야 永遠한 敎室位置가 適當치안니 함으로 이에

敎室移築의 件을 發論하사든바 門은 사람이 一致贊同하야 드디여 帆懸洞

前麓에 다가 基地를 定하시고 八月에 建築工事に 着手하야 木造草葺十間一

棟과 八間二棟을 동년시월 同年十月에 일으려 畢役하니 建築에 同力한 氏名은 아래
 외갓다

專務 주력 자
 主力 자에

오창건 김기천 리재철 송규 박세철 리동안 송도성 리춘풍 송적표
 吳昌建 金幾千 李載喆 宋奎 朴世喆 李東安 宋道性 李春風 宋赤壁
 김월봉 김광선 김남천
 金月峰 金光旋 金南天

後 援 원 자
 後 援 者

서중안 서동풍 송벽조 리완철 서기채 류진 리순순 김명량 김홍철
 徐中安 徐東風 宋碧照 李完喆 徐奇彩 劉巾 李旬旬 金明朗 金洪哲
 문정규 류기만 신정권 김영철 김순천 량하운 김화옥 리대련화
 文正奎 劉奇滿 辛正權 金永喆 金順天 梁夏雲 金華玉 李大蓮華
 장적조 리강연화 리만수월 정청강월 박벽송월 장일생화 리일근 전삼삼
 張寂照 李江蓮華 李滿水月 鄭淸江月 朴碧松月 姜一生華 李一根 田參參
 이엿고 그외에도 이삼동리 촌인 조력 村人의 助力도 잇섯다

예전 제육편 급철편 내제례 일자개정
 禮典第六編及七編內祭禮外日字改正

一、매년 양역 십이월 말일 오후
 每年陽曆十二月末日午後로 불어

정남정녀 급전무출신자
 貞男貞女及專務出身者의

열반공동기념식
 涅槃共同紀念式

원
員으로 하야금 선생 先生님이 말씀하신 주작야선 晝作夜禪 령육쌍전 靈肉雙全을 장려 獎勵하여 월조암전면 月照庵前面

에다 호수 湖水를 막어 저수지 貯水池를 만들고 그밀에 草生地에다가는 수전 水田을 만들면

근백여두락 近百餘斗落 내장사부근 內藏寺附近 산관 山板에다가는 시목 柿木 울목 栗木 거만주 幾萬株를 植 植

부 付하야 후일인재양성 後日人材養成에 기금 基金을 삼고 현재사중도조 現在寺中賭租 백여석 百餘石을 받아서는 본산 本山

에 기십석 幾十石을 주고 여조 餘條와 현재수입 現在收入되는 시목 柿木에서 매년불소 每年不 소하

여 불공시주등 佛供施主等을 합 合해 보면 기십명 幾十名의 선원양식 禪員糧食은 될 것이나 그대로 사용 그대로 사용

하고 후 後에는 선생 先生이 만드려 노신 영광갈롱리 靈光吉龍里 간사지방언담 干瀉地防堰畓이 완전 完全하게 되

면 근이백석 近二百石이 되겠다 하니 장차 將次에는 합류 合流할 것이며 또는 또는 草生地作畓

에서 백석 近百石이나 올 것이며 사중 寺中 산전리용 山田利用하는 대에도 기십석 幾十石이나 올 것이

니 차차주선 次々周旋해 가면 장차 將次에는 기백명 幾百名의人材라도 양성 養成하게 될 것이나

그대로 알으시고 내장사 巴內藏寺로 현재리론 오시라 하였다

대종사 大宗師께서는 개인소유 그말씀을 들으시고 현재이론 現在理論에 있어서 내장사 內藏寺로

말하면 공유물 個人所有가 아니라 공유물 公有物이 되었으니 일이인 어찌 一二人의 생각으로만 斷

定하리요 만은 주선 될수만 있다면 주선 周旋하여 주시는 것이 미래불교계 未來佛敎界에

만흔曙光이 서광 될것이라하시고 인 因하야 송규 宋奎 김광선 金光旋 오창건 吳昌建 리동안 李東安 리준경 李俊鏡

等을 내장사 內藏寺 화명 鶴鳴 화상 和尚의게로 가라하시고 대종사 大宗師께서 송규 宋奎 김광선 金光旋 오창건 吳昌建 리동안 李東安 리준경 李俊鏡

後에 내장사 內藏寺로 가시기로 하섯다

시창 始創 구년 九年 갑자 甲子

二月頃에 蓬萊精舍 蓬萊精舍로 불어 대종사 大宗師께서 익산리 益山裡里 박원석 朴元石家를 경유 經由하사 전음 全飲

光을다리시고 김제 金堤 서중안 徐中安家를 경유 經由하사 정읍군 井邑郡內藏寺에 일으셔서 주지 住持和

尙白鶴鳴과 송규 宋奎 김광선 金光旋 오창건 吳昌建 리동안 李東安 리준경 李俊鏡等을 반가 반가히 만나보시고

또는 김제 金堤에 거주 居住하는 송만경 宋萬京은 당시 當時內藏寺에서 불법 佛法을 연구 研究하고 중 있든中 처

음으로 대종사 大宗師에게 원위 願爲弟子하엿는지라 이 이 묻은사람과 화명 鶴鳴和尙으로더부러

蓬萊精舍에서 약속 約束하든일을 다시 다시討議하든바 그 山中僧侶의 反對 反對로 화상 和尚의自

由를 상실 喪失하고 심신 心身이 불안 不安中에 잇는 잇는것을보신 대종사 大宗師께서는 여러 여러方面으로

和尙의마음을 안심 安心케하시고 몇 몇사람의 제자 弟子와같이 내장사 內藏寺를 출발 出發하사 서중안 徐中安

全飲光 최도화 崔道華 송규 宋奎等을 다 다리시고 경성 京城으로가시엿난대 최도화 崔道華의 안내 案內로

京城居住하는 박사 朴四時華와 그 親弟 박공명 朴孔明善을 만나시고 공명 孔明善의 친녀 親女 성성 成聖

원가 願家에 삼사월류숙 三四日留宿하신후 서중안 주선 徐中安의周旋으로 시내당주동 市內唐珠洞에다가 일개월한정 一個月限定

하고 가옥이십여간 차대 家屋二十餘間을 임시출장소 정 借貸하여 경성출발 臨時出張所를 정 定하신바 마동진화 李東震華 김삼매화등 金三味華等

여러會員을연으시고 일개월후 一個月後에는 경성출발 京城을出發하시여 익산리리 益山裡里 박원석가류숙 朴元石家에留宿

하시고 익일 삼월말일 그翌日 곧 三月末日에 전주부완산정 全州府完山町 전음광가행가 全飲光家에行駕하시니 송만경 宋萬京은

김제 金堤로볼어 박원석 朴元石은 리들 裡里로볼어來到하였고 외 그外에도 각처 各處에서 다수 多數의信

者가 래도 來到하였다 본회창립준비 이에本會創立準備를 토의 討議할새 서중안 송만경 리청춘 徐中安 宋萬京 李靑春

리춘풍 문정규 박원석 전음광 李春風 文正奎 朴元石 全飲光이 각발거인 各々發起人이되다 발거인 이몬은發起人이 먼저

본회창설장소 本會創設場所를 정위 定하기爲하야 호상론의 互相論議하드니 대종사 大宗師께서 말씀하여가라사 말씀하여가라사

익산군리리부근 토지 益山郡裡里附近은 광활 土地도 교통편리 廣濶하고 무산자생활 또는交通이便利하야 無產者의生活 無產者의生活

이며 발거인일동 各處會員의來往이 편리 便利할듯하니 정 그곧으로定함이 어떠하냐고 물으심 어떠하냐고 물으심

애 본회창립총회 개최 發起人一同은 복종 그말씀에 服從하였다

그리하야 본회창립총회 개최 本會創立總會 장소 開催의場所는 익산군리리부근 보광사 臨時益山郡裡里附近 보광사 普光寺로豫定하

고 회관건설지 會館建設地는 리리부근 裡里附近을 실지답사 후 지정 實地踏查한後 지정 指定하기로 약속 후 사유 約束한後 그事由

를 각방면신자 各方面信者의게 통지 通知하다

차월이십구일 豫定地인 裡里普光寺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니 靈光地方

四月二十九日 豫定地인 裡里普光寺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니 靈光地方

대표로서는 金幾千 金光旋 吳昌建 李東安 李俊鏡이요 金堤地方代表로는

徐中安 宋萬京 金斗煥 李一根 具南守요 益山은 朴元石 全州는 文正奎

全飲光 林東岳 등이 各々同地方代表資格으로써 叅席하다 이에 宋萬京의 開

會辭를 비롯하여 臨時議長을 選舉한바 徐中安이 被任되다 이어서 本會創立의

趣旨說明이 있었고 任員選舉順에 入하야난 會長에 徐中安 書記에 (臨時) 金光

旋으로 選定한後 其外任員은 當分間留案에 置하다 討議件에 入하야 會長徐

中安으로 불어 本會館建設의 方策을 問議한바 宋萬京이 各信徒의 義捐金

수납 必要함을 提議한바 滿場의 贊同을 得하야 義捐金募集에 關한 一切의 權을

收納의 必要함을 提議한바 滿場의 贊同을 得하야 義捐金募集에 關한 一切의 權을

會長의 一任한後 裡里有志 鄭翰朝氏의 祝辭와 會長의 答辭가 있은後 閉會하다

창립총회 후 各代表等은 大宗師를 모시고 裡里附近各地를 一々巡視하

야써 會館建設地를 選擇하더니 八月頃에 일으러 益山郡北一面新龍里에다가

터를 定한바 會長徐中安이 그 基地三千餘坪의 代金과 現金六百餘圓의 義捐

이 있었고 其外에도 各處會員으로 불어 七八百圓의 義捐이 收納되다 이때에

이 있었고 其外에도 各處會員으로 불어 七八百圓의 義捐이 收納되다 이때에

이 있었고 其外에도 各處會員으로 불어 七八百圓의 義捐이 收納되다 이때에

이 있었고 其外에도 各處會員으로 불어 七八百圓의 義捐이 收納되다 이때에

이 있었고 其外에도 各處會員으로 불어 七八百圓의 義捐이 收納되다 이때에

이 있었고 其外에도 各處會員으로 불어 七八百圓의 義捐이 收納되다 이때에

명광 靈光으로 불어 專務출신 金光旋 吳昌建 李東安 李俊鏡等은 裡里朴

원석가 元石家에 臨時住接하였으나 赤手空拳으로 生活方路가 甚히渺然하드니 會

장서중안 長徐中安의 周旋으로 同郡松鶴里 東洋拓殖會社所有의 土地를借하야 萬般의

로고 勞苦를격그면서 僅々히作農한結果 秋期收穫에 若干의利益을얻어서 工夫의

자본 資本을 삼게되었으니 이것이 곧 産業部의前身이 된것이다

구월 九月에 裡里朴元石家에서 臨時要人會를開하고 會長徐中安의 義捐金收納報

고 告를맞이고 本會館建築計畫을 決議한後 前記場所인 北一面新龍里三百四十

사면지 四番地의二에 建築工事を着手하야 本會總部會館의 建設이며 本會看板을 世

을무름쓰며 全年十一月頃에일으려 本會總部會館의 建設이며 本會看板을 世

공비약일천수백원 工費約一千數百圓인바 이것이 本會總部會館의 建設이며 本會看板을 世

상 上에廣告하는 初歩이었다 本會總部會館의 建設이며 本會看板을 世

(一) 專務勞力者

- 김광선 金光旋
- 오창건 吳昌建
- 리동안 李東安
- 리준경 李俊鏡
- 송규 宋奎
- 송도성 宋道性
- 전음광 全飲光
- 송만경 宋萬京

문정규 김남천 송적벽 조갑종
金正奎 金南天 宋赤壁 趙甲鐘

특별후원자
特別後援者

서중안 서동풍 리청춘 리동진화 리공주 전삼삼 최도화 박원석
徐中安 徐東風 李靑春 李東震華 李共珠 田參參 崔道華 朴元石

박사시화 장적조 등 리동진화 리공주 전삼삼 최도화 박원석
朴四時華 張寂照等 李東震華 李共珠 田參參 崔道華 朴元石

로(此에)뵙함)

第十六章 創立當年の會勢

일 회 원 상
一、會員狀況

회원 영광 김제 전주 부안 경성 진안 각지 산재 남자약육
會員은 영광 金堤 全州 扶安 京城 鎭安 各地에 散在한바 男子約六

십명 여자약칠십명 총합백수십명
十名 女子約七十名 總合百數十名으로써 組織되다

이 전문출신자 상황
二、專務出身者의狀況

전문출신자 영광 익산 동 종합수십명
專務出身者는 영광 益山을通하여 總合十數名으로써 各々會務에 勞力하다

삼 부
三、部

부서 조직 본회규약 칠부 기관 조직
部署의組織은 본會規約에 七部의機關으로 組織하였으나 人員과

사무 정리 본회규약 칠부 기관 조직
事務가 整理되지못하였음으로 當時形便에依하여 庶務部 敎務部 相助部

삼부 三部的 형식 形式만 單置하고 庶務部長에 吳昌建 全書記 宋道性 教務部長에 宋萬京 相助部書記에 全飲光으로 選定하야 그事務를 取扱케하다

四、資 產

本會의 資產은 靈光堰番이 百數十斗落이요 靈光 益山 扶安을 합하여 建

物이 約數十間이 되는中 堰番은 아직도 海毒(塩毒)이 다 解消되지 못하였음

으로 當時의 賭租收益이 僅十餘石에 不過하다

五、維 持 狀 况

本會館에 있어서는 小數會員일 자라도 一心合力한 結果에 僅々히 成造를

畢하였으나 維持方法에 對하야는 十餘名專務出身者의 生活에 對한 方路가

甚히 渺然하드니 宋赤壁 金正奎 金光旋等의 發議로써 十二月頃에는 製館

業을 始作한바 宋赤壁 金光旋이 主務가 되고 門은 人員이 行商이 되야 그

利益으로 그날 糊口를 하게 되니 平素各自家庭에서 일직한 番도 經

驗해 보지 못한 그商賈에 어찌條格이 골나 마쳤을 것이며 風雪을 무릅쓰고

黃登 裡里等 街路와 밋村落附近에 終日徘徊할 때에 그苦生이 오직하였

스며 또는朝夕食事조석식사 充實충실치 못하야 大槩대개는 엿밥으로써 때를代身대신할적이

많하였으며 居處거처에 있어서는 寢具침구가 없는 漏濕누습한房에서 疲困피곤한몸을 쉬이

게되얏으니 外人외인으로써 萬若만약當時를 目睹목도하였다면 누구나勿論물론하고 가엾

스생각을 禁금치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專務전무출신 立志입지한 몸은사람들은

조곰도거기에 苦生고생이라는 생각을내지아니하고 오즉이會上회상에 叅詣참예한것만

으로 唯一유일의자미를삼아서 그 安定안정된心理와 濶達활달한態度는 조곰도거리키는

바가 없었으며 夕飯석반後에는 모다 一席일석에會集회집하야 終日종일經過를報告하고 感감

想處理等을討議하며 大宗師대종사께서는 間々간간히法說을베푸사 問은사람의 工夫공부

길을 指導지도해주시니 그團變단변한狀況은 이가곧 地上지상天國인가하얏다

逸話

一、 木板일 엷든 이 약이

製飴業을할때에 行商하는사람들이 엷을팔고 늦게돌아오면 每樣매양 그엷木

板을 廊下에그냥두고 室內에藏置치 안이하드니 大宗師께서 이것을보시

고 경계警戒하여 가라사대 지금只今 이 집의 장원墻垣이 심甚히 허소虛疎하고 세상世上人心이 또또

한같이 안어한즉 석후夕後에는 목판이엿木板을 랑하廊下에 두지말고 실내室內로 옴옴

기라하시였다 그러나그러나 그 목은목은 사람들사람들은 한한 실내室內의 침소寢所가 협차狹窄한 것만것만 생각생각

하고 또는또는 기왕既往 일일 마마 간間 방치放置하였으니 조조 곰곰도 실물失物 해해 본본 적적이 없없 는는 대대

안 할할 염려念慮를 하하 신신 다다 하하 고고 그그 말말 삼삼 에에 對對 하하 야야 특特別 한한 注注意 心心을 가가 지지 안안 하하 였였 는는

바 몇몇 칠칠 이이 지지 내내 지지 못못 하하 야야 어어 느느 날날 이이 른른 아아 침침 에에 한한 제제 자자가 먼먼 저저 랑랑 하하 에에 나나 가가 다다 가가

어 제제 저저 녀녀 에에 두두 었었 는는 옛옛 목木板 이이 옛옛 을을 담담 은은 그그 대대 로로 한한 개개 도도 남남 지지 안안 이이 하하 고고 다다 없없 어어 진진

것을 발發 見見 한한 即即時 에에 가가 만만 히히 이이 事事實 을을 대大 衆衆 에에 通通 知知 하하 니니 목목 은은 사사 람람 들들은 그그 제제

야 크크 게게 놀놀 내내 여여 수수 番番 이이 옛옛 목木板 을을 일일 은은 것것 보보 담담 日日 前前 대대 宗宗 師師 의의 말말 삼삼 에에 注注 意意 心心 을을

가 지지 지지 못못 한한 것것 을을 罪罪 悚悚 히히 生生 覺覺 하하 고고 서서 로로 수수 군군 대대 고고 있있 었었 다다

대 宗宗 師師 께께 서서 그그 事事實 을을 알알 으으 셨셨 은은 나나 잠잠 짓짓 물물은 체체 하하 시시 고고 얼얼 마마 後後 에에 한한 제제 자자를 불불

은 사사 지지 난난 밤밤 에에 무무 슨슨 일일이 있있 느느 냐냐 고고 물물 으으 시시 니니 그그 弟弟 子子 慚慚 愧愧 한한 얼얼 골골 노노 비비 로로 소소

옛 목木板 失失 物物 된된 事事由 를를 고고 한한 지지 라라

대 宗宗 師師 가가 라라 사사 대대 어어 제제 밤밤 에에 諸諸 君君 等等 의의 게게 實實 驗驗 的的 先先 生生 이이 단단 여여 갓갓 거거 날날 諸諸 君君 等等

은 아지 못하느냐? 諸君等 나를信仰함마 比 할대 없으나 日 前內의警戒 형제

에도 注意心이 없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어제밤에 지내간 實驗的 先生 실험적

을 後 後에는 注意心이 自然 中周密할지니 앞으로 은살님을 經營 하는 경영

諸君 君은 조 公도 그 先生을 怨望 하지말고 엿 과 木 板으로써 先生 님의 의 戒을

禮 物로 生 覺하라 하시니 몬 은 弟 子等은 그 法說에 더욱 感 歎하야 來 頭千萬

事 에 미 리 注意 할것을 各 各 銘 心하였드니 그 後 一 日을 지낸後 이 른아침에

意 外에도 그 없어졌든 木 板이 會 館엿 大 路邊에 積 在하였다 이 것을發見

中 間 몬 은사람들이 곳 달녀가서 調 査해본즉 엿 木板이 全 部前모양으로있는

가라사대 諸 君들의 그 先生에 對 한 禮 物이 너 머나적지안는가 하시니 몬 은사

람들은 一 邊驚喜하며 一 邊은 또 한 異 常히여긴바 있 었다한다

二、李 東安에 對 한 笑 話

專 務出身 李 東安은 벼 碌農村에 出 生하였으나 元 來家勢가 過 히貧寒치아니

함으로 生 長時別苦生을 지 내지안이하였든바 오 족 大 道에 發 心하야 몬 은

고생 苦生을 樂으로 解釋하고 一心으로써 會務에 專力하드니 이때에 이르러 不

득己엿과는 行商을 하게 되얏는지라 그리하야 檜木板을 질머지고 街路에나

서기는 하얏으나 平生에 일즉한번도 經驗해보지 못한 그行商에 소리내

여외기가 第一困難이 되엿다 그리함으로 얼마동안 內心에 踟躕하다가 한

妙計를 生覺하야 洞里어린兒孩의게 먼저엿을 몇개 주고 代身소리를 하게 하야

처음날은 그方式으로써 엿을 팔고 夕飯後 經過報告를 할 때에 그이악이를

하게 되야 一同은 모다 拍掌大笑한일이 있엇다

(右는製飴業時그實景概況)



乳兒養育에對하야

一、離乳時期

乳兒의게 젖떼는 것이 매우어려운問題이다 너머나 일즉젖을 떼여도 乳兒의게 害를 주고 너무늦도록젖을 먹여도 乳兒의게 利롭지 못한 것이므로 適當한時期에

是 十一日 結制하여 翌年二月六日 解制한바 그課程은 念佛坐

禪經傳 講演 會話 問目 性理 定期日記 注意 操作 隨時說教 十一課

로定하였으니 念佛坐禪은 修養을 鍛鍊기爲함이요 講演 會話 問目 性理

는 研究를 鍛鍊기爲함이요 定期日記 注意 操作은 取捨를 鍛鍊기爲함이요

隨時說教는 當時法師가 때를따라서 問은學者의게 工夫方式을 고로鍛鍊식

히기爲함이니 이는곳 定期專門訓練하는課程이되고 工夫方式을 고로鍛鍊식

◎常時訓練은 常時應用注意事項六條로써 定하였으니 應用한대 穩全

한生覺으로 取捨하기를 注意할것 二 應用하기前에 應用的形勢를보아서

미리研磨하기를 注意할것 三 空間時 經傳練習하기를 注意할것 四 空間

時 疑頭研磨하기를 注意할것 五 空間時 坐禪或念佛하기를 注意할것 六

應用後 對照하기를 注意할것等이나 이는곳何時를勿論하고 一切動靜에 恒

常이三綱領(一條取捨二、三、四條研究、五條修養、六條三綱領의行否對照)工夫를 隨機應用

하는 教法이되며 工夫人이 教務部에외서 하는責任六條를 定하였으니 右記應用

◎또는 工夫人이 教務部에외서 하는責任六條를 定하였으니 右記應用

注意事項을 지낸後 經過報告하기를 注意할것 二 或感覺이 있을時는 提出하

기를注意할것 三 特別히 疑心된事項이 있을時는 諒解언거를 注意할것

四 定期工夫는 期會를 따라 實行하기를 注意할것 五 每月例會에는 반다

시 參詣하기를 注意할것 六 敎務部를 단여 갈時는 得失對照를 注意할것等

이니 이는곳 常時應用注意事項六條의 압일을 引導하는 敎法이 된바 以上各

條項을 實地的 練習하기爲하야 또한

○有無念調査와 日記調査法이 있으니 有無念調査는 日行事務의 물은境界를

지낼때에 穩全한生覺으로 取捨의精神을 놓치아니하야 그일을 바르게處理

한件은 有念處理라稱하고 穩全한生覺으로 取捨의精神이 없이 그일을 그릇

處理한件은 無念處理라稱하야 每日夕後에는 반다시 有念處理가 몇件 無念

處理가 몇件을 스스로調査記載하야 一日間工夫 잘하고 못한것과 罪짓고 福

짓는것을 自覺케하는法이요 (無識한사람은 太로써 調査하는法이있고 有識한사람은 用

紙로써 調査하는法이있음)

○ 또 日記調査法은 以上에말한바 常時應用注意事項六條와 工夫人이 敎務

部에 외서 하는責任六條를對照하여 每日그實行與否를 記載하며 그外에도

精神 肉神 物質 三方面을通하여 남의게惠施한 것과 남으로 불어 惠受한 것

을對照하여 每日그 貸借與否를記載하며 또는 工夫 事業 生活 三方面의

意見提出을對照하여 每日그 研究의時間 有無를記載하며 또는 三十戒文을

對照하여 每日그 犯過有無를 記載하여 이 여러가지方法으로 一日間工夫 잘

하고 못한 것과 罪짓고 福짓는 것을 더욱詳細計算케 하는法이 되는바 이

工夫를또한 달노檢査하기爲하여 工夫人으로하여금 團을組織하여 每月그團

長이 調査하는法을 定하시고 해로檢査하기爲하여 그團長이 每年敎務部에

報告하는法을 定하시으니 그方法이 甚히簡明하고 脉絡이 또한貫通하여

有無識男女老少를 勿論하고 根機를따라 萬卷書籍을 보지안홀지라도 바로

正法을 믿게하는 訓練의 綱領이 되었다 (內譯은六大要領及團規에參照)

오월육일 五月六日에 大宗師께서 以上規定에依하여 定期訓練法을 實施하실새 當時
총부 카옥 總部の家屋이 아직陝窄함으로 臨時 總部區內에 全飲光氏의 私家新築한

가옥일부 家屋一部를 차 借하여 교무 宋奎氏의 지도下에 男女禪員十餘人이 專門訓練을 받게 하시고 當年再회는 교무 李春風氏의 指導下에 男女禪員二十餘人이 專門訓練을 받게 하신다

전문훈련 專門訓練을 받게 하신다 本會工夫의 定期入禪은 此兩期로써 元始가 되다

第十九章

學力考試와學位等級法의制定

팔월 大衆師께서 學力考試法을 發表하시니 考試科目은 修養 研究 取

捨 三科로分하고 그科目內에는 甲班 乙班 丙班 丁班 戊班을置하여 工

夫人의 修養에對한實力과 研究에對한實力과 取捨에對한實力을 個別로써

考試한후 그實力을따라 各々班別두는法을 定하시니 學位等級法을 發表

하시니 가로대 普通簿 特信簿 法魔相戰簿 法強降魔簿 出家簿 大覺如來

簿 六級으로定하신바 六級中間에 各豫備簿를置하여 그昇級條項을 準備케

하시며 昇級規例는 또한三綱領으로써 標準하야 그調査方式을 定하시니

調査期間은 滿三箇年으로써하야 工夫人이萬若 正式昇級이될時는 반다시그

級을따라서 指定한學位證書와 及證書이있고 法強降魔簿以上에 昇級될時는

會中에서 盛大한莊嚴을設備하야 그昇級儀式을 舉行하고 이어서 慶宴을排

會中에서 盛大한莊嚴을設備하야 그昇級儀式을 舉行하고 이어서 慶宴을排

會中에서 盛大한莊嚴을設備하야 그昇級儀式을 舉行하고 이어서 慶宴을排

설 設하야 本會의 榮光을 表하고 一般會員들은 是은 祝辭를 言니여 昇級人을 慰
 勞하는 法等을 定하신바 訓練法의 처음 施設에 當하야 아직 法을 다 實現할
 수 없으나 學者의 程度가 漸次 進歩됨을 따라서 時期에 應하야 順次로써 實行
 하라 하시다

第二十章 事業考試法의 制定

대종사 大宗師께서 또 事業考試法을 發表하시니 考試科目은 創立要論 十一條로
 쓰하시되 每回十二年紀念을 當할時나 또는 有功當人인 涅槃에 들時는 그條
 項으로써 逐條 審查하야 本會 創立에 關한 是은 成績을 指定한바 等級에 있어
 서는 創立 限度 一回에 一等은 四千圓以上이요 二回에 一等은 八千圓以上이
 요 三回에 一等은 一萬六千圓以上으로 定하고 그 以下等數는 每等에 半額式
 을 내려서 定하기로 하며 成績總計는 工夫界 學位等級 (工夫界學位等級도 金額으로

써 換算하야 成績을 보나니 例를 들면 大覺如來簿는 一等事業으로 計算한것) 과 事業界事
 業等級을 並合 編成하며 事業界內에도 精神 肉身의 勤勞와 物質의 義捐과
 기타 特別賞與金等을 總合하야 是은 有功人의 成績을 보게 하시다

其他 特別賞與金等을 總合하야 是은 有功人의 成績을 보게 하시다

其他 特別賞與金等을 總合하야 是은 有功人의 成績을 보게 하시다

其他 特別賞與金等을 總合하야 是은 有功人의 成績을 보게 하시다

其他 特別賞與金等을 總合하야 是은 有功人의 成績을 보게 하시다

其他 特別賞與金等을 總合하야 是은 有功人의 成績을 보게 하시다

其他 特別賞與金等을 總合하야 是은 有功人의 成績을 보게 하시다

其他 特別賞與金等을 總合하야 是은 有功人의 成績을 보게 하시다

第二十一章 各項處理

(內譯은六大要領及禮典에參照)

(靈光支部) 本會總部가 益山에 創設임에 伴하야 元靈光教堂은 支部라 명칭하

고 支部形式으로 任員을 選定할새 支部長에 金幾千氏 敎務部長에 宋碧

조씨 照氏로 任命하야 工夫 事業 兩方面을 各々 統轄케 하다

이해에 大宗師께서 任員에 對한 規程을 發表하시니 任員은 大小階級을 勿論

하고 오즉 專務出身者로써 實務를 잡게 하며 任務에 對한 料金은 每年勤苦金으

로써 計算하야 本會有功成績에 記載하기로 制定하시다

(內譯은本會則에參照)

總部內 專務出身者의 製糖營業은 往年으로 볼어 六七個月을 實驗하여 왔으나

利益이 甚히 薄弱하야 無產者의 工夫費用을 貯蓄할 希望이 없고 또는 그

行商이 恒常外境만 接觸하야 처음 工夫人의 마음 修練에 或妨害될 點이 있을

가 念慮하야 드디여 그 營業을 廢止하고 여러 方面의 周旋으로 同面萬石里前坪

에 東洋拓殖會社所有畚 數十斗落을 借하야 金光旋 李俊鏡 趙甲鐘 李一根

사인 일조 국군 출장작농
 四人이 一組가 되야 僅々히 出張作農한바
 冬期禪費를 하게 되었고 會中經費는
 補充維持하다 若干의 會金收入과 또는 任員等의 農
 秋收時 多小間利益을 얻게 되야
 農

益山養蚕狀況

育英部

本地方에서는 예년 例年과 같아 남녀일동 男女一同아 育英事業을 目標하고 育英事業을 目標하고 공동출역 共同出役으로
 양잠 결과 結果 가성적 其成績이 양호 良好하야 십여개수전 전부 十餘枚收繭全部가 본군 동회 本郡農會 잠전 공동 蚕繭共同
 販賣所에서 특우등 特優等으로 선정 판매 選定販賣되었음니다 출역 出役하여 주신 여러분 여러분
 열성 결정 結晶이라고 하겠읍니다 故爾대 양잠 수익 養蚕收益을 거년 추잡 去年秋蚕까지 차금 是債金
 의 상목대삼백이십사원 오십오전 桑木代參百貳拾四圓五拾五錢也 반상 返償으로 인 因하야 출역 出役하신 여러분의 여러분의 성적 배 成績配
 當을 금춘 當을 못하였으나 금춘 불어서는 今春 불어서는 다소 간 多小間 수익 收益되는 대로 양잠 인명 외 養蚕人名義로 성적 成績
 배당 금번 출역 인원 及 時間數配當內譯等을 알려 드리는 바이오 及 時間數配當內譯等을 알려 드리는 바이오
 配當을 하기로 되어

佛法研究會創建史

第二十二章 本會儀禮의 發表

始創十一年 (丙寅)

大宗師께서 朝鮮의 近代禮法이 너머나 煩遽하야 人類生活에 많은 拘束을 주게

하고 또는 經濟方面에도 無端한 虛費를 나게 하야 社會發展上 障礙된바

가 있음을 慨嘆하사 일즉이 그 改革에 留意하섯든바 이해 二月에 비로소 新定

儀禮를 發表하시니 그 大要는 아래와 같다

一、出生의 禮

在來風俗에 사람이 出生하면 그 門戶에 禁錮를 처서 喪人 服人 과 其他 雜人의

出入을 嚴禁하고 또는 出生한 집 家眷은 喪家 服家와 其他 不淨場所에 出入을 忌

避하야 出生後 四十九日 間은 그 家眷이 아모리 多情한 사이와 有事한 處地라도

不得已 交通 杜絶을 하는 곳이 많고 甚한 者는 或人 倫에 損傷된 行動까지 하게 되나

니 (例를 들면 親戚或親友 사이에 喪變을 當할 지라도 自己 家庭 產故로 인하야 그 道理를 일케 되는 等 風習을 云함)

이 는 三神이라는 家神을 崇拜하야 產母와 및 幼兒에 對한 罪福이 오즉 그 三神

에 있는 줄 노만 알고 일동일정 一動一靜에 스사로 三神의 威力에 놀니여 감 敢히 自力行動을

하지 못하는 反面에 산모 유아 產母와 및 幼兒에 對한 衛生은 등한서 도로 赫等 閑視한 바가 만 만하였든

바 대종사 大宗師께서 일종 미신 이는 한갓 一種의 迷信으로 구속 사람이 스스로 拘束을 취 取함이라고 말

삼하시오 삼신 원리 그 三神이라는 元理를 해석 解釋하시라 (三神은 父의 神 母의 神 自己의 神 三合出生

을(云할) 以上에 말한 在來의 迷惑을 타피 打破케 하시오 본회 새로히 本會의 出生儀禮를

發表하시니 주의 그 條目은 入胎前後에 산모 위생 產母의 衛生하는 法과 해산서 산모 解産時 產母와 가권 및 家眷

이 같이 注意하는 法과 부모 자 또는 產兒命名하는 法과 사십구일 간출생 표기 四十九日間 出生標旗를 建立하야

그 出生을 廣告하는 法과 부모 자 그 父母되는 者로써 재태 미신 의 在來 迷信에 依하야 방면 여러 方面으로

소모 비용 저축 消耗되는 費用을 貯蓄하야 후일 출생자 교육비 後日 出生者의 教育費에 충용 充用하기로 하는 법등 정 法等을 定하

사 회원 중리 해 會員 中 理解 있는 者로써 실행 먼저 實行하라 하시다

본회 대 本禮에 對한 실행자 實行者로는 진안 회원 노익 송옥 영손 김영봉 鎭安 會員 盧德頌 玉의 令孫 金榮奉이 出生할 때와 그후 其後

대종사 영석 박길연 大宗師의 令息 朴吉然이 출생 出生할 때에 실행 먼저 實行하였으니 출생례 입법 이 出生禮의 法은

김영봉 박길연 金榮奉 朴吉然으로 부터 호시 嚆矢가 되다

二、成年의 禮

재래 在來에는 冠禮의 禮가 있어서 突弁着冠으로 써 成人이라 稱하였으나 時代가 變

更되고 衣冠이 改樣됨을 따라 突弁着冠으로는 該法을 施行하지 못하게 되었든바

大 宗 師 께서 現代法律에 參照하사 새로히 成年禮를 發表하시니 가로대 男子滿

二十歲 女子滿十七歲가 되고 보면 特別히 成年式을 舉行하고 式을 舉行한 後에

是 在來의 冠禮者 又是 成婚者와 같이 待遇케 하시다

三、 婚 姻 의 禮 在來 婚姻은 大槩 媒妁의 言만 信聽하야 서로 實地 調査와 心理 妥合에 充分치 못

한 바가 있었고 婚禮를 行할 時는 多히 虛禮에 執着하야 籠衣服 衾枕 外 是은 婚

具를 華麗히 작만하며 盛大한 宴會를 한다 兩家가 서로 간다 온다 하야 많은 金

錢이 消費됨으로 貧弱한 사람은 그 周旋에 汨沒하야 人間 唯一의 慶事를 도로혀

憂慮中에서 行하게 되며 甚한 者는 負債를 生하야 後日 夫婦同居 時라도 團欒

한 生活를 못하게 되는 中 鄉里 風俗은 그것이 傳統的 習慣이 되야 萬一 그 대로 안

이 한 사람의 게난 事로 嘲笑와 誹謗을 더 하야 是은 사람의 生活 經濟에 큰 障害가

되여 왔었든바 大 宗 師 께서 이를 改革하사 그 明確하고 必要인 法을 選擇하

여 새로히 본회 혼례 본회의婚禮를 발표 發表하시니 조목 그條目은 혼인 소개소 婚姻紹介所를 두워서 實地 실지

程度를 서로알게하는 法과 의견상합 意見이相合할時는 양방 兩方이같이會合하야 필요 必要없이 소모 消耗되

을許하는法과 식순의 式順에依하야 정식결혼 正式結婚하는法과 재례예식 在來禮式에必要없이 필요 必要를얻

는代金을 예산 豫算하야 공의사업 公益事業에 희사 喜捨하야 여러사람으로하야 金 그必要를얻

게하는法等을 지정 指定하사 회원중리해 會員中理解있는者로써 실행 먼저實行하라 하시다

本禮에對한實行者로는 령광김광선 장남김홍철 동군김태상 옥장녀리보응 靈光金光旋의長男金洪哲과 송벽조 차남송도성 결혼 宋碧照의次男宋道性의結婚할

華의結婚할때와 그후 其後 대종사 장녀박길선 송벽조 차남송도성 결혼 大宗師의長女朴吉善과 송벽조 차남송도성 결혼 宋碧照의次男宋道性의結婚할

四、喪葬의禮 실행 對한實行하였으니 혼례 개정 婚禮의改正은 차사인 此四人으로붙어 원시 元始가되다

在來喪葬의禮는 가혹 너무나苛酷하야 상주 상예 喪主가喪禮를 다행 大行하기로하면 삼년간 三年間은不

得己 인류사회 人類社會와 절연 絶緣치안을수없고 신체 약자 身體가弱한者로는 도로혀 以孝傷孝의境

에 達함이만하였으며 상주 喪主가그같이 신고 辛苦하게하며 무의식 無意識한屍體의게난

華麗한遂衣와 일체상구 一切喪具를 분외 分外로裝飾하며 각종제물 또는各種祭物과 상인 喪人의喪服諸具

며 촌인 村人의焚薪達夜等 문은 周旋에 과 過한金錢을消費하야 빈약 貧弱한子孫은 차예 此禮

式식을 행행하자면 不得부득已이負債부채을 生생하지 안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비록 父母부모를

爲위하는 精誠정성이라 하겠지 만은 父母부모를 爲위하는 實事사실에 있어서는 別별必要필요를 드리지

못하고 한 것 物質물질濫費낭비로써 社會사회發展발전上상障장애碍해가 없지 안하였든바 大宗대종師사께서

이를 改개革혁하사 是이는 拘束구속과 虛禮허례를 一일切체打타破파하시오 貧富빈부貴賤귀천을 勿論물론하고 實行실행

할 만 한 程度정도에서 先靈선영子孫자손社會사회國家국가가 다 一일旺盛왕성할 만 한 禮法예법을 選擇선택하사 새로

히 本會본회의 喪葬상장禮예를 發表발표하시니 그 條目조목은 人사람이 涅槃열반에 臨임할 時시 親近친근者자로써

病者병자의 對대하는 法법과 病者병자로써 涅槃열반을 自覺자각할 時시 스사로 取취하는 法법과 護喪호상所소를

設置설치하야 그 是이는 事務사무를 處理처리하는 法법과 各각種종旗기와 章장을 製제造조하야 그 喪禮상예를

表표하는 法법과 一일等등四십九구日일로 붙어 六等육등當日당일까지 服制복제期間기간을 定정하야 着服착복과 脫

服복을 하게 하는 法법과 喪葬상장時시 是이는 儀의式식을 行행하는 法법과 在來재래禮式예식에 或혹必要필요없이

消費소비되는 代金대금을 豫算예산하야 公益공익事業사업의 發展발전을 도읍게 하는 法법과 葬地장지에 있어서

도 風水풍수輩배의 明堂명당說설을 打破타파하야 오즉 現代현대法律법률에 依의하야 共同공동墓묘地지 或혹私設사설

墓묘地지 火葬화장을 勿論물론하고 當時당시의 便利편리를 따라 行행케 하되 或혹資產자산이 裕餘유여한 人사람은

다로하 淸秀청수한 山산地지를 選擇선택하야 公園공원式식으로써 그 周圍주위를 莊嚴장엄하고 中央중앙에는 廟

각 건설 閣을建設하여 永遠히 父母祖先을 追慕케하는 法等을 指定하사 會員中理解있

고 能力있는者로써 먼저 實行하라하시다 當人의 遺言에 依하여 宗族鄉

本禮에 對한 實行者로는 金堤徐東風이 涅槃할時 此喪葬禮의 立法은 徐東風

里의 謗은 誹謗을 排除하고 먼저 斷行하였으니 公園廟閣의 法만은 아직 實

이 처음이 되었으나 그 子孫의 生活이 裕餘치 못하여 行치 못하였다

五、祭祀

在來祭祀의 禮式은 大小祭를 勿論하고 神位下에 飲食을 陳設한後 禮拜한것

이 定式임으로 飲食이 아니고는 祭祀를 못할것같이 印像이 되었다 그러나

음식 根本子孫이 父母를爲하는 精誠心의 代表로써 一種의 形式을 갖우는대에

不過한 줄을 모르고 盲目的으로 飲食을 많이 準備하여야만 祭祀도 잘 지내며

따라서 父母祖先의 게 孝誠한 줄로 生覺해야 貴한 金錢만 漸々 無形跡한대에

消盡하니 어찌답지 아니하라? 또는 祭祀는 死後의 일임에도 不顧하고 父

母生前에는 如何히 奉養하드래도 死後祭祀만 盛大히 舉行하는 것이 子孫의 道

리 아는者가間有하니 이는그實地의孝行을 近代新學에

몰두 沒頭하는或者는 祭祀는迷信이라하야 全廢하는者도있나나 此는남의子孫된者

로써 그根本을너머나 背忘함이라 此는다祭祀法制定한本理를 理解치못한바

임으로 大宗師께서 또한이를改定하사 한갓飲食에만 依賴하는 在來의禮式

과 迷信으로만 認証하는 或新學者의 그릇된思想을 一切打破하시고 그當

然하고 必要있는法을 選擇하여 새로이 本會의祭禮를 發表하시니 그條目

은 紀念主의資格은 長男次男과 長女次女와 冥法子女가다 同一되는法과

涅槃人의影像과 歷史를미리奉安하는法과 祭祀臨時에 紀念主의齋戒하는法과

祭祀禮式은 오즉報恩과 追慕와 祝文으로써 그先靈을爲하야 祝願하는法과

獻貢物은 現金을原則으로하되 或當日參祭員을 供饋하기爲하야 半額으로써

飲食을作挽하고 半額의現金은 涅槃人의名義로 公益事業에喜捨하야 無自力

者를救濟하며 永遠히그涅槃人의 冥福이되게하는法等을 制定하사 會員中理

解있는者도써 먼저實行하라하시다 全飲光이그父親祭祀를當하야 먼저實行하였으니

本禮에對한 實行者로는 全飲光이그父親祭祀를當하야 먼저實行하였으니

차제례 입법 전음광 호시
此祭禮의立法은 全飲光이嚆矢가되다

第二十三章 四紀念의發表

대종사 회생일기념회
大宗師께서 또本會四紀念法을 發表하시니 一回는 陰曆三月二十六日인바 本

會生日紀念과 會員共同生日紀念을兼하야 本會敎堂에서 合同紀念케한것

이요 二回는 同六月二十六日인바 이는在來朝鮮風俗上 一月十五日 三月三

日 四月八日 五月端午 六月流頭 七月七夕 八月秋夕 九月重九等

各名節을總合하야 一日로써 本會敎堂에서 共同紀念케한것이요 三回는 九

月二十六日인바 이는各專務出身者의先代(父母以上) 祭祀紀念과 會員中此紀

念에 加入한者의先代祭祀를 總合하야 一日로써 本會敎堂에서 共同紀念케

한것이요 四回는 十二月二十六日인바 이는在來의 一月一日에 換歲紀念이

있음으로 此를前期하야 換歲紀念으로 定하고 本會敎堂에서 또한共同紀念

케한것이니 그實行方法에對하야는 會員의貧富形便에依하야 生日 名節 祭

祀 換歲를 勿論하고 在來의各自家庭에서 消費되는 代金을計算하야 그

半分은 將來無自力者保護事業에 充用케하고 半分은 供給部에 支拂하야

당일 음식 설비 충용 當日 飲食 設備 에 충용 充用 케 하나니 회원 이 는 곳 회원 은 회원 의 기념연회 紀念 宴會 를 집단적 集團 的 으로 써 써

충분 充分 히 이행 履行 하는 동시 同時 에 각자 各自 의 명 名 義 로 회원 또 한 회원 他人 을 위 爲 하는 사업비 事業 費 를 저축 貯蓄 하야

영원 永遠 히 공도사업 公道 事業 을 하 게 하며 또는 또 는 생일 生日 명절 名節 제사등 祭祀 等 各 日 字 를 합동 合同 實 行 하는

관 關係 로 모든 莫은 사람 大 人 의 생활경제 生活 經濟 에 막대 莫大 한 절약 節約 을 연 연 계 하는 묘안 妙案 이 신 바 동년 全年 불어

각회 各 會 員 中 이해 理 解 有는 者 로 본년 本 年 度 공부 工 夫 及 사업 事 業 의 개관 概 觀

第二十四章 본년 本 年 度 공부 工 夫 及 사업 事 業 의 개관 概 觀

一、교육 教 育 상황 狀 況

하 夏 禪 에 는 녀선원 女 禪 員 十 餘 人 이 교무 教 務 李 春 風 의 지도 指 導 下 에 제삼회 第 三 回 定 期 工 夫 를 행 行 하

옛 矣 고 동선 冬 禪 에 는 남녀합 男 女 合 三 十 餘 人 이 송만경 宋 萬 京 리춘풍 李 春 風 兩 教 務 的 지도 指 導 下 에 제사 第 四

회정 回 定 期 工 夫 를 行 하 다

二、경성 京 城 出 張 所 의 設 置

경성 京 城 은 甲 子 以 後 로 회원 會 員 이 漸 次 增 加 되 야 독신자 篤 信 者 十 餘 人 이 有 었 으 나 총부 總 部 와 距

리 里 가 遠 隔 함 으 로 회원 會 員 은 此 를 恒 常 遺 憾 으 로 생각 生 覺 하 든 바 칠월 七 月 頃 에 리동 李 東

진화 震 華 의 特 志 로 부내 府 內 昌 信 洞 六 〇 五 番 地 에 목조 木 造 草 葺 五 間 一 棟 과 사간 四 間 一 棟 을 대 垓

경성 京 城 出 張 所 의 設 置

경성 京 城 은 甲 子 以 後 로 회원 會 員 이 漸 次 增 加 되 야 독신자 篤 信 者 十 餘 人 이 有 었 으 나 총부 總 部 와 距

리 里 가 遠 隔 함 으 로 회원 會 員 은 此 를 恒 常 遺 憾 으 로 생각 生 覺 하 든 바 칠월 七 月 頃 에 리동 李 東

진화 震 華 의 特 志 로 부내 府 內 昌 信 洞 六 〇 五 番 地 에 목조 木 造 草 葺 五 間 一 棟 과 사간 四 間 一 棟 을 대 垓

경성 京 城 出 張 所 의 設 置

경성 京 城 은 甲 子 以 後 로 회원 會 員 이 漸 次 增 加 되 야 독신자 篤 信 者 十 餘 人 이 有 었 으 나 총부 總 部 와 距

리 里 가 遠 隔 함 으 로 회원 會 員 은 此 를 恒 常 遺 憾 으 로 생각 生 覺 하 든 바 칠월 七 月 頃 에 리동 李 東

진화 震 華 의 特 志 로 부내 府 內 昌 信 洞 六 〇 五 番 地 에 목조 木 造 草 葺 五 間 一 棟 과 사간 四 間 一 棟 을 대 垓

지명합

地並合하여

時價千餘圓價値를

義捐함에 따라

東震華와

當地會員李共珠

閱自然華

李性覺

朴孔明善

李玄空

成聖願

李正圓

沈五雲

金樂園

李哲

玉等이

併力하여

維持費를負擔하고

金三昧華는

獻身的으로

直接治産을

要求함으로

自担하여

場所와 밀維持計劃이

大綱完成된後

總部에 敎務派送을

要求함으로

庶務部書記宋道性을

同所敎務에 任命하여

京城에 派遣하다

三、任員의 狀況

總部는

庶務部書記宋道性이

京城에 派遣됨을 따라

相助部書記全飲光이

兼任

하야

補缺執務하였고

其他任員은

모다 仍任하였으며

靈光任員도

또한 依前

執務하다

四、農業부의 狀況

總部農業部는

李俊鏡

李一根

金京煥等이

全郡黃登面竹村里坪에

全飲光所

有畜數十斗落을

借하여

出張作農으로 써

冬期禪費를 作挽하다



수할 것이요 만약 밖으로 상에 집착하여 문은유위법으로써 참을 구하며 절을 짓고 답을 조성함으로써 공부를 삼는 자는 비록 누천만 겁을 지낼 지라도 견성은 하지 못하리라 다못 이 정법을 들 어다가 그 법대로 수행할 것이요 백물에 만사럼을 두어서 도성품을 구애하지 말지니 그리하면 우리 도의 본래 종지를 일치 않 이 하리라 하시더라

佛法研究會創建史

第二十五章 有功人待遇法の發表

始創十一年 (丁卯)

일월 대종사 一月에 大宗師께서 본회유공인대우법 本會有功人待遇法을 발표 發表하시니 유공종별 그有功種別은 정 一、貞 남정녀 男貞女로써 본회 本會를爲하야 헌신노력자 獻身努力한者 헌신노력자 二、專務出身으로써 본회 本會를爲하야 헌신노력자 三、在家會員으로써 본회 本會를爲하야 헌신노력자 四、法 강함마부이상 强降魔簿以上에 승급 昇級한子女를 희사 喜捨하야 희사위 喜捨位에 해당자 該當한者 차사종 此四種으로하고 각각성적 各々成績의等級을 따라 따라 무위무탁경우 無依無托한境遇가 되고 보면 노쇠시봉양 老衰時奉養하는法과 법등정 涅槃後紀念하는 法等을定하시고 기념일자 紀念日字는 매년일월일 每年一月一

일 정남정녀합동기념 삼월일일 전무출신합동기념 구월일일 재가

일에 貞男貞女合同紀念과 三月一日에 專務出身合同紀念과 九月一日에 在家

창립주합동기념 십이월일일 히사위 합동기념 거행

創立主合同紀念과 十二月一日에 喜捨位の合同紀念을 舉行케하시니 이것이

본회 사대제사 사대제사 사당

본회의 四大祭祀인바 이 四大祭祀의 祠堂을 또한 各々建設하야 永遠히 後世의

추모를 받게하는 規例를 定하사 本會各敎堂에서 一齊히 舉行하라하시다

但 四種祠堂各々建設에 限하야는 本會의 經濟가 充實함을 기달너 漸次로 實行

하라 하섯슴

하라 하섯슴

(內譯은 禮典에 參照)

第二十六章 身分檢査法の發表

이월 大宗사 公부인 신분검사법 발표

二月에 大宗師께서 工夫人 身分檢査法을 發表하시니 그 大要는 一、當然等

級과 不當等級을 檢査하야 工夫人으로 하야 公 當時善惡의 根性과 罪福의 要素

가 어느 程度에 있는 것을 二、惠施惠受와 貸付借用을 檢査하

야 工夫人으로 하야 公 當時福祿貯蓄과 負債額數가 어느 程度에 있는 것을 스

사 現存資産과 當年收入支出을 檢査하야 工夫人으로 하야 公

當時生活豫算이 어느 程度에 있는 것을 스사 로 알게 하야 公 工夫進

당시 생활상에 산 現存 자산 當年 수입 지출 檢査 하야 工夫人

당시 생활상에 산 現存 자산 當年 수입 지출 檢査 하야 工夫人

당시 생활상에 산 現存 자산 當年 수입 지출 檢査 하야 工夫人

당시 생활상에 산 現存 자산 當年 수입 지출 檢査 하야 工夫人

당시 생활상에 산 現存 자산 當年 수입 지출 檢査 하야 工夫人

행상 기질 변화와 捨罪取福의 길을 스사로促進케 하며 또는 본회의人材選擇하는 데에도 그 必要한 方法을 緣기爲함인바 每年第二學期解制時에는 定期工夫 人파 및 一般幹部及要人으로서 하야곰 一次式行하라하시다

(內譯은身分檢査規例에參照)

第二十七章 本年度工夫及事業概觀

一、敎育狀況

夏禪에는 女禪員十餘人인 敎務李春風의指導下에 第五回定期工夫를行하였고 동선에는 男女合四十餘人인 李春風 宋萬京兩敎務의指導下에 第六回定期工夫를行하다

二、新興出張所의設置

신흥출장소 元來李東安이 大宗師의法을信奉한後 始創五年(庚申)三月頃에 본향里인 靈光郡敵良面新川里(元新興)에서 同志申正局 李亨局 李完喆 李千甲 李昊春 丁大秀 申奉局 李光洙 朱公允 金起鳳 朴川先等을合하여 工夫費用을 貯蓄할目的으로 敵良組合이라名稱하고 吉龍里元期成組合을 模

방 費節約과 勤儉貯蓄을 獎勵하드니 三月에 本會出張所로 改名
做하야 消費節約과 勤儉貯蓄을 獎勵하드니 三月에 本會出張所로 改名

하고 同志一般이 全部會員에 加入하는 同時에 組合室木造草葺八間一棟과
행랑사간일동 시가약사백여원가치 本會에 義捐하고 各組會員의 預金도 또

行廊四間一棟 時價畧四百餘圓價値를 本會에 義捐하고 各組會員의 預金도 또

한 本會相助部에 移轉하야 合同管理케 하다

三、規約과 經傳의 印刷

왕년갑자 創立總會를 開催할時 徐中安의 周旋으로 本會의 趣旨規約을 臨
往年甲子에 創立總會를 開催할時 徐中安의 周旋으로 本會의 趣旨規約을 臨

時印刷하였으나 그組織이 甚히 完全치 못하였고 乙丑以降으로 每年二回의 定
기공부 行하였으나 그組織이 甚히 完全치 못하였고 乙丑以降으로 每年二回의 定

期工夫를 行하였으나 教科書印刷을 하지 못함으로 當時敎務及禪員이 各々 騰
서연습 困難이 甚히 만하였든바 京城李共珠의 特志로써 數百圓의 現金을

書練習하야 困難이 甚히 만하였든바 京城李共珠의 特志로써 數百圓의 現金을

義捐하야 規約經傳等數千部를 印刷하니 本會의 教科書籍이 비로소 各會員의 各
보급 規約經傳等數千部를 印刷하니 本會의 教科書籍이 비로소 各會員의 各

普及되다

當時出版된 書籍은 本會의 趣旨規約書 附工夫要項相助部規約書 修養研究要
당시 출판된 書籍은 本會의 趣旨規約書 附工夫要項相助部規約書 修養研究要

論等三種이 發刊되었음!

四、相助部本店의 移轉

상조부 갑자 이후 본회총부구내
相助部는 甲子以後로 本會總部構內에서 그事務를 取扱하여오든바
發展上必要에 依하여 靈光吉龍里支部構內로 相助部本店을 定하고
全部書記에 任命하여 派遣하였으며 益山은 相助部支店格으로 되어야
이 依舊執務하다

五、任員及産業部員의 狀況
總部는 庶務部長李東安이 辭任하고 全時에 李載喆이 被選되었으며 書記는
京城敎務宋道性이 再選轉任되고 京城敎務는 宋奎가 被任되다
靈光吉龍里支部는 多依前한中 但相助部書記趙甲鐘이 新任하였고 新興出張所
는 李亨局으로 써 主務를 任命하는 同時에 臨時指導는 吉龍里支部에서 하기로
定하다

總部産業부원 김광선 지도하
總部産業部員은 金光旋의 指導下에 李寶局 李俊鏡等이 本會所有畚(李青春
의 義捐한畚) 數十斗落을 作農하여 冬期入禪에 參詣하다

六、兩事業機關의 創設
本會十部機關中 一인 産業部가 創立總會를 지낸後 數年間을 四五人의 組合作農

양사업기관 창설
창립총회
수년간
조합작농

본회십부기관중일인산업부
창립총회
수년간
조합작농

본회십부기관중일인산업부
창립총회
수년간
조합작농

으로 써 僅々히 그基礎를 維持하여 왔으나 運用資金의 不足으로 써 恒常微々

不振하여 多數無產者의 定期工夫에 參詣케 할 길이 甚히 漠然하드니 當時專務

出身者宋萬京의 提案으로 此를 振興키 爲하여 淸은 方式을 利用하여 資金萬圓以

上을 積立한後 그金額으로 써 産業部員의 作農時 資金融通을 後援하여 定期

工夫에 多數入叅시키기로 써 目的하고 産業部創立團을 組織한바 同團員의

로 吳昌建 崔道華 趙甲鐘 李靑春 金幾千 金南天 全飲光 宋奎等이 發

起人이 되얏고 또十部中一人 育英部가 規約上에는 比喩制定되었으나 아직

은 그建設의 實蹟이 없엇든바 當時專務出身者宋道性과 李東安의 提案으로 此

를 建設키 爲하여 또한 淸은 方式을 利用하여 資金萬圓以上을 積立한後 그利

益으로 써 實地育英事業에 着手하기로 하고 育英部創立團을 組織한바 同團

員으로 李東安 金光旋 李春風 李載喆 文正奎 李寶局 徐中安等이 發起

人이 되었으며 其他淸은 團은 各々意向에 달아 兩團中何處나 加擔케 한바 參

加團은 合十數團으로 써 그熱誠과 活動이 甚히 壯하였다 이대에 京城李性

覺은 全團의 資金擴充策으로 써 먹고 입고 쓰는대에 節約하여 每月團會時 團

금약간식지참 金若干式持參하자는 意見을提出한바 一般의讚同을得하야 即時採用되얏고

당시京城敎務宋奎는 全地方每月例會時 會員의晝飯白飯을 唐麵으로代하야

그經濟된金額을 土庫(병어리)에貯蓄하야 卽時採用되얏으며 後靈光地方은 趙甲

을提出한바 此亦同様の讚同을얻어 卽時採用되얏으며 趙甲

鐘의提案으로써 同地方團員의 一切讚同을得하야 男女가各々共同作農을 始

작하엿고 益山總部는 李靑春의提案으로써 團員會의讚同을得하야 共同養蚕

을始作하엿으며 또는任員會의決議로써 任員의共同作農을 始作하야 이

은方式으로 兩機關의資金擴充에 努力하다

第二十七章 第一回紀念總會

始創十三年 (戊辰)

본년삼월이십육일 本會創立後滿十二個年을經한 第一回紀念日이며 또는年

중행사 定期總會日이다 그리하야 二月初旬부터 本會創立後十二個年間

事業과 歷史와 各會員成績을 一々히編成하기爲하야 宋奎 宋道性 趙甲鐘

金幾千 全飲光等이 此를主宰하여 그整理에奔忙하엿다

◎五年以上專務出身者

宋萬京 宋道性 李俊鏡 李春風 金光旋 金三味華

趙甲鐘 李東安 全飲光

◎在家會員中一等專務注力者

李亨局 金南天 吳昌建 李載喆 李共珠 具南守

張寂照 李萬甲 朴四時華 崔道華

◎在家會員中二等專務注力者

李昊春 文正奎 朴元石 曹頌廣 鄭三寶華 李性覺

崔尙玉 沈五雲 閔自然華 金正覺 金樂園 盧德誦玉

李哲玉 鄭世月 李玄空 李正圓 朴解願玉 宋月守

李江蓮華 權動華 朴孔明善

◎蓬萊會上有功人

金南天 吳昌建 金慧月 崔道華 宋道性 具南守

宋月守 李萬甲 張正守 宋奎 李清風 張寂照

◎當時州邑組織된產業部員

李東安 鄭一成 朴大完 具南守 宋奉煥 朴老信

田宗煥 李寶局 權大鎬 金光旋 李昊春 曹專權

등등 인바 이상 이상은사람을 그事業部分에依하야 各々撮影하다

但李願華는 在家專務注力一等資格에 合當하나 當時總會에不參하였음으로

寫眞에缺員되었으며 其外에도各處를通하야 如斯한者間有하였다

오후 午後에는 다시各會員의 一回事業成績表授與式을行할새 大宗師께서 法座에出

席하시 書記로하야곰 먼저그內譯을 報告케하신後 順序로써表狀을親授하시

니 그大畧은아래와같다

◎一等有功人(四千圓以上)

李青春 李東震華 徐中安 田參參 金光旋等五人

◎二等有功人(二千圓以上)

金幾千 李共珠等二人

◎三等有功人(千圓以上)

李載喆 宋碧照 劉正天 宋奎等四人

◎四等有功人(五百圓以上)

朴四時華 張寂照 宋道性 李願華 李玄空 梁夏雲 李東安 吳昌建
 金東淳 趙甲鐘 崔道華等十一人

◎五等有功人(二百五十圓以上)

朴世喆 徐東風 金南天 宋月守 李萬甲 全飲光 金鏡照 閔自然華

具南守 申練淑 金雪上華 朴普順華 李亨局等十三人

기외육등 십팔인 칠등 이십팔인 팔등 삼십이인 구등 오십일인 십등
 其外六等이十八人 七等이二十八人 八等이三十二人 九等이五十一人 十等

이五十五人 十一等이四十八人 十二等이四十六人等外人이 百餘名에達하다

(此內에는或涅槃人 脫退人 信徒等도 混入하였음) (但五等以下有功人氏名은 別冊有功簿에 記錄

되었음으로 此에略함)

이십팔인 대종사 二十八日에는 大宗師께서 또한工夫等級을 考查하사 嚴肅한莊嚴을 갖은後 처

음으로昇級禮式을 舉行하시니 그內譯은 아래와 같다

正式法强降魔簿

朴世喆 徐東風 二人

正式特信簿

宋碧照 金幾千 宋奎 宋道性 李東震華 李共珠等六人

豫備特信簿

李春風 全飲光 李東安 宋萬京 李載喆 金光旋 金南天 趙甲鐘 李完喆

吳昌建 文正奎 李昊春 李亨局 曹頌廣 成丁哲 朴大完 宋奉煥 李俊鏡

李青春 田參參 崔道華 朴四時華 辛正浪 金順天 張寂照 閔自然華

具南守 李萬甲 李願華 李雲外 呂清雲 李玄空 權動華 鄭世月 文化順

李清風 趙循環 金永信 孫學敬 金滿空月 李江蓮華 李成初 李哲玉

金樂園 沈五雲 金正覺 李正圓 李性覺 盧德誦玉 鄭三寶華 崔尙玉

金三味華 朴解願玉 成聖願 朴孔明善 李大教 李出塵華 李萬善華

曹專權 단박세철 鄭一成等六十人 동유십인 이昇級이다 중급

但朴世喆 서동풍이인 徐東安二人은 생전승급 生前昇級이안이고 사후승급 死後昇級이되는바 실지공부 實地工夫에

있어서는 법강함마부자격 法強降魔簿資格에 충분 充分치못하나 생전 生前에도그만한特信이있었고 특신

臨終時까지도 공부심 그工夫心과 사업심 事業心이 철저 徹底하였는바 특중 더욱히特徵으로써 세 世

結은血印의前事가있었고 동풍 東風은 열반시충천 涅槃時衝天의 서기 瑞氣가있어 신성표 그信誠을表한바

가됨으로 대종사 大宗師께서 특별 特別히 사후승급 死後昇級을 식히 食히신것이다

第二十九章 第壹回紀念의當年會勢

一、會員狀況

회원 영광 의산 경성 김재 진안 부안 등 각지 합
 會員은 靈光 益山 京城 金堤 鎮安 扶安 등 各地를 合하여 總數가 四百三十
 팔인중 남자 일백칠십육인 여자 이백육십이인 열반회원십인
 八人中 男子로 一百七十六人 이요 女子로 二百六十二人 인바 涅槃會員十人 과
 탈퇴회원 오십오인 제 現存實數가 三百七十三人 이되다
 脫退會員五十五人 을 除하니 現存實數가 三百七十三人 이되다

二、專務出身者의狀況

전문출신자 영광 의산 경성 등지 통 약이십여인 단심혈성
 專務出身者는 靈光 益山 京城等地를 通하여 約二十餘人 이 丹心血誠으로써
 후임원 후 산업부원 가입 각각직무 노력
 或은任員 或은産業部員에 加入하여 各々職務에 努力하다

三、基本資産의狀況

창립이후총수입금 사만이십원십이전내 십이년간비용소모금액육천팔백이
 創立以後總收入金이 四萬貳拾圓拾貳錢內에서 十二年間費用消耗金六千八百貳
 십구원구십육전 제 現存資産이 參萬參千壹百九拾圓拾六錢이 되는바 그內
 拾九圓九拾六錢을 除하니 現存資産이 參萬參千壹百九拾圓拾六錢이 되는바 그內
 譯은 아래와 같다

益山總部 土地 九千壹百七拾六圓七拾錢

建物 五千貳百參拾九圓貳拾八錢

什器 七百八拾壹圓九拾八錢

靈光支部 土地 壹萬貳千參百七拾五圓也

建物 貳千七百圓也

什器 八拾壹圓八拾七錢

新興出張所 建物 四百八拾貳圓九拾六錢

什器 貳拾圓

扶安修養所 建物 五百圓

什器 貳拾圓

京城出張所 土地 四百五拾圓

建物 壹千參百貳拾參圓

什器 四拾圓

그외상조부자산 其外相助部資產이 영광익산동 靈光益山을通하야

출자금오백여원 出資金五百餘圓과

저축금이천여원달 貯蓄金貳千餘圓에達

하야 업적 그業績이이 심양호 甚히良好하엿다